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3. 11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여행	해외여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여행 경험률은 70.1%로 9월 이후 하락세임. ▶ 여행 평균기간은 1.94박, 1인 당 총 경비는 23.2만원, 1일당은 7.9만원임. ▶ '경상권'의 여행지 점유율은 오른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전월대비 감소함. ▶ 착한 가격의 청결/위생적인 숙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호텔' 이용률 소폭 회복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해외여행 경험률(지난 6개월내)은 31.8%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해외여행의 평균기간은 5.75박, 1인 당 총 경비는 176.0만원, 1일 당 경비는 26.1만원임. ▶ '아시아' 지역 점유율은 79.1%로 일본을 중심으로 강세를 유지함.
코로나 이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CI로 보면 여행 기간(98)은 코로나 전과 유사하나, 총 비용(110) 및 일 평균 비용(111)은 100을 상회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여행 경비 증가가 있음. ▶ 숙소 선정 시 코로나 이전보다 '숙박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반면, '접근성'의 중요도는 낮아짐. 	코로나 이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기간 TCI는 99로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으나, 1인 당 총 경비(117) 및 1일당 경비(118) 지출은 증가함. ▶ '아시아' 지역 점유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베트남', '태국' 방문율이 증가함.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여행 비용을 '더 쓸 것'은 감소, '덜 쓸 것'은 상승세에 있어 국내여행 시장의 위축이 예상됨. ▶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지속 하락하고 있어 반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함.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계획률(향후 6개월)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여행과 달리 향후 해외여행 비용을 '더 쓸 것'은 증가, '덜 쓸 것'은 감소하여 해외여행에서의 지출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 지역 쏠림이 강화되어 가까운 지역으로의 여행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임.

▶ 23년 11월 이달의 토팍: "국내여행비의 8배가까운데 해외여행가는 이유는?"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1인 당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TCI: 95	70.1% (지난 3개월)	1.94(박) 98	23.2(만원) 110▲	7.9(만원) 111▲	1 경상권 28.8% 105	1 자연풍경상 24.3% 97	1 호텔 26.6% 101	69.3% (향후 3개월) 97	1 경상권 25.0% 92	1 자연풍경상 23.9% 90
해외여행 TCI: 75▽	31.8% (지난 6개월)	5.75(박) 99	176.0(만원) 117▲	26.1(만원) 118▲	1 아시아 79.1% 112▲	-	-	49.4% (향후 6개월) 88▽	1 아시아 77.0% 113▲	-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023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 (2023년 11월 결과) / (2019년 11월 결과) * 100

** ▲▽는 TCI(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 모집단
- 표본추출 틀
- 표본규모
- 표본추출 방법
- 자료수집 방법
- 표본의 구성(할당)
-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11월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7)	50.9
	여성	(983)	49.1
연령대	20대	(346)	17.3
	30대	(356)	17.8
	40대	(435)	21.7
	50대	(464)	23.2
	60대 이상	(399)	19.9
성 BY 연령대	남성 20대	(181)	9.0
	남성 30대	(184)	9.2
	남성 40대	(220)	11.0
	남성 50대	(236)	11.8
	남성 60세 이상	(196)	9.8
	여성 20대	(165)	8.2
	여성 30대	(172)	8.6
	여성 40대	(215)	10.8
	여성 50대	(228)	11.4
	여성 60세 이상	(203)	10.2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634)	31.7
	기혼	(1,268)	63.4
	기타	(98)	4.9
가구 상황	미혼	(634)	31.7
	신혼기(자녀 없음)	(140)	7.0
	자녀 유아&성장 (막내 입학 전~초등생)	(355)	17.8
	자녀 성장(막내 중고생)	(158)	7.9
	자녀 성인(막내 대학)	(513)	25.7
	자녀 독립(막내 결혼)	(200)	10.0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255)	13.8
	300~500만원 미만	(521)	28.1
	500~700만원 미만	(521)	28.1
	700만원 이상	(558)	30.1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2023년 10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임사공휴일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2023년 11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2023년 12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2022년 11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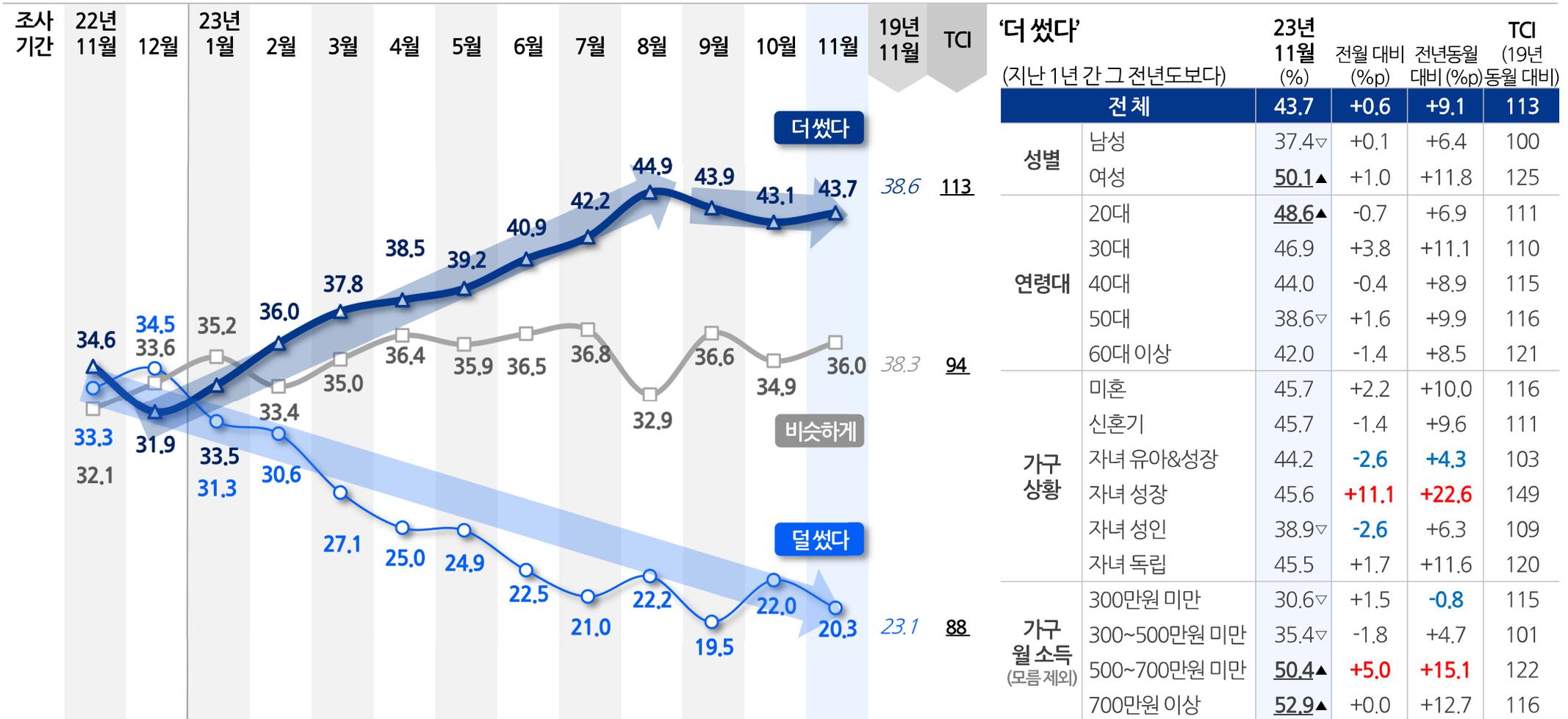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1년)

- 지난 1년간 관광·여행비를 ‘더 썼다’는 응답은 3개월 연속 변화 없으며(43%대), TCI는 113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높음.
- 상대적으로 △여성 △20대 △가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더 썼다’ 응답이 높음.
- 반면, ‘덜 썼다’는 7월까지 하락 이후 소폭 등락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음(TCI 8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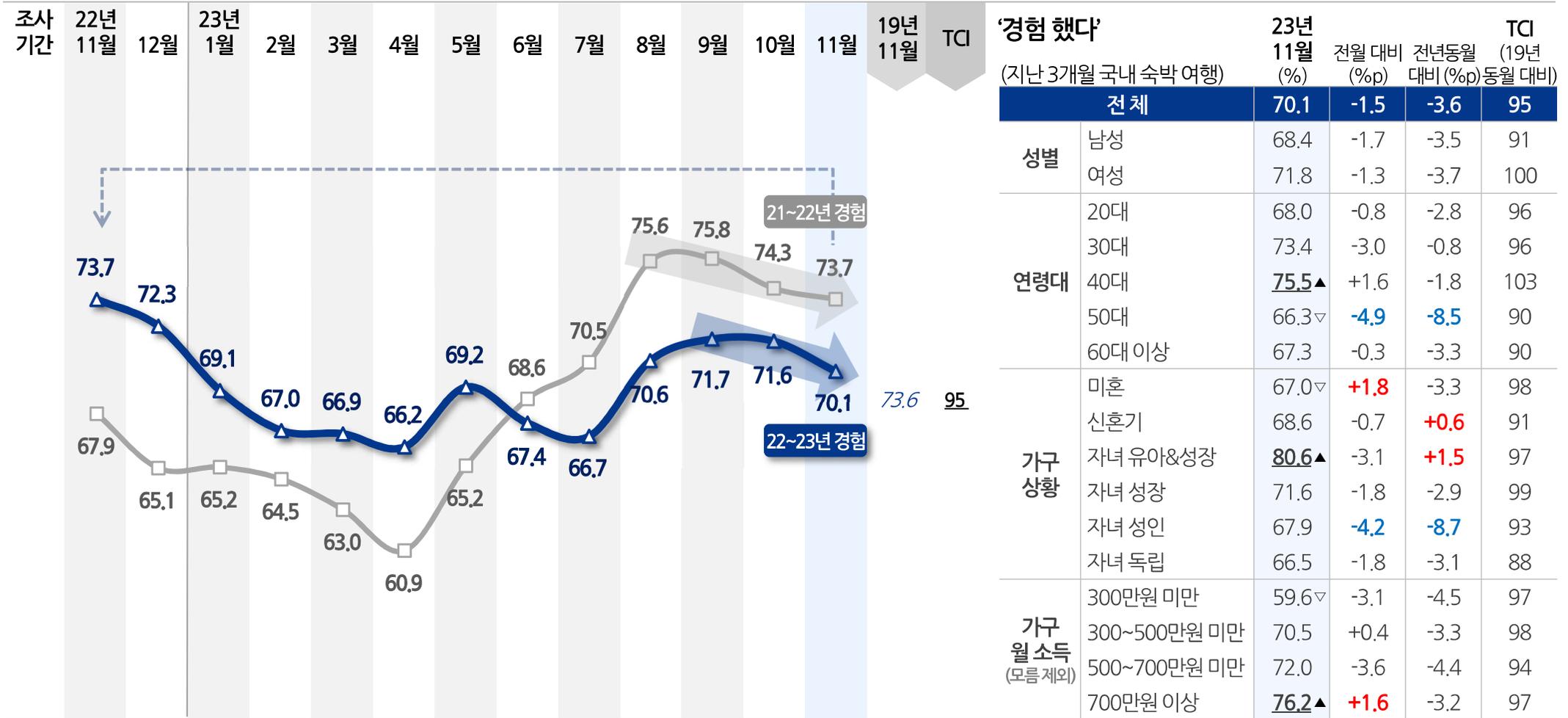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 지난 4개월 간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70% 초반을 유지하였으나, 동한기로 접어들고 있음.
- TCI는 95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함.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40대 △자녀 유아 및 성장기 △가구 월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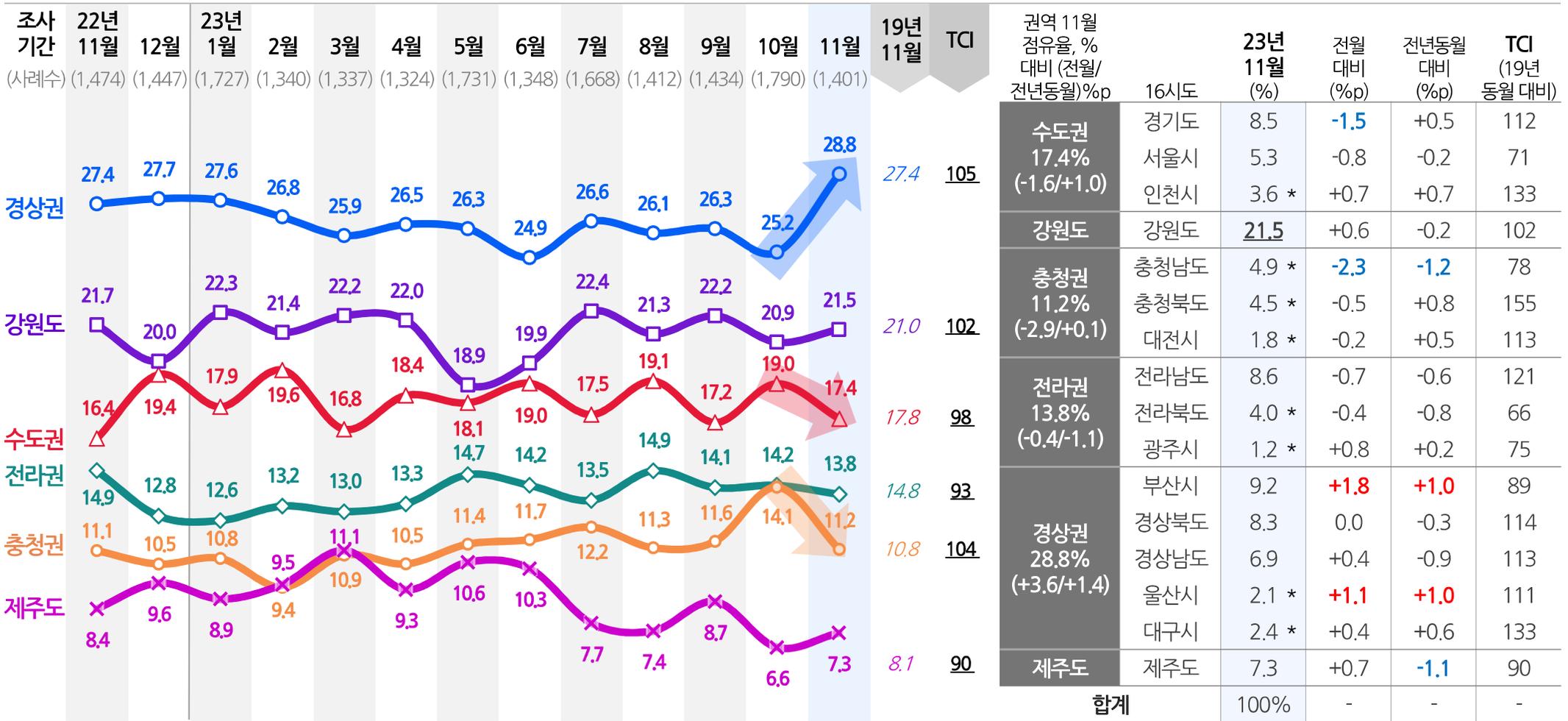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8.8%)', '강원도(21.5%)', '수도권(17.4%)' 순임.
- 전월 대비 '경상권'이 3.6%p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부산'과 '울산'의 상승이 큼.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하락함.
- TCI는 90~105 범위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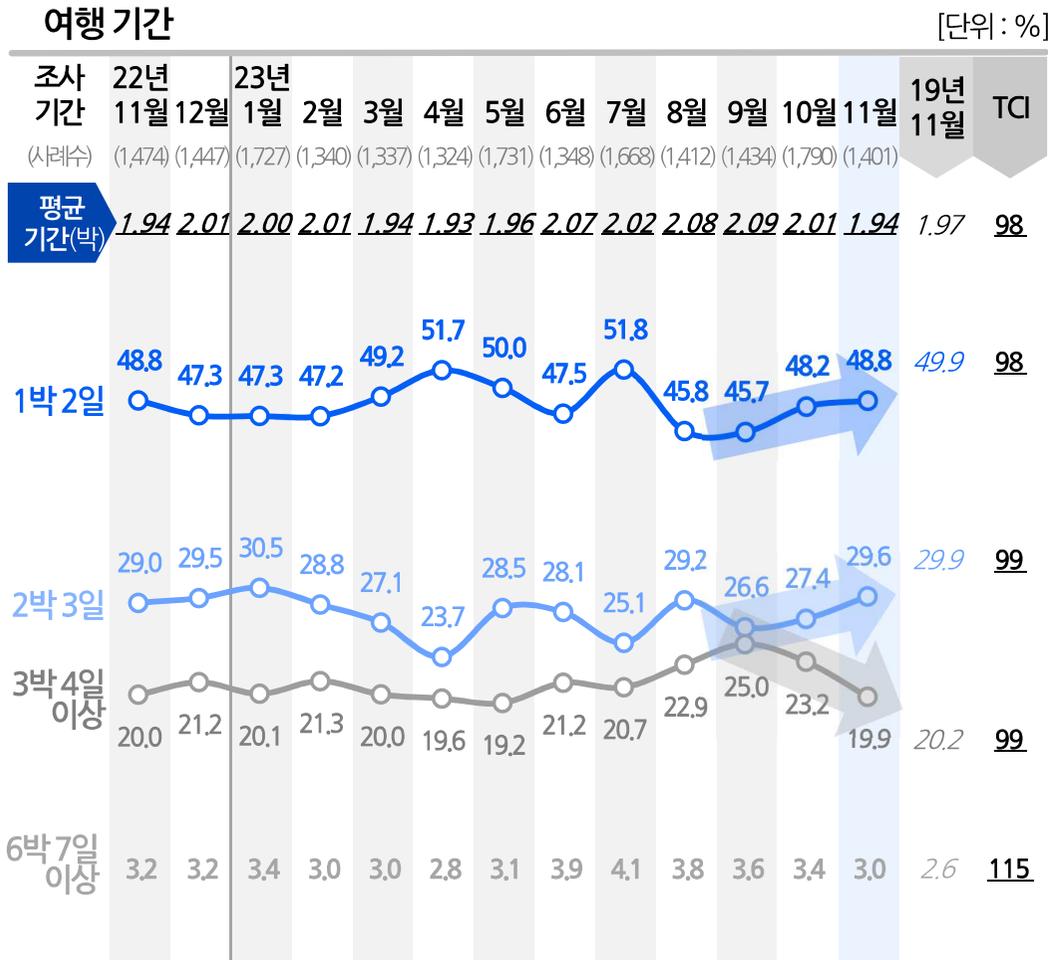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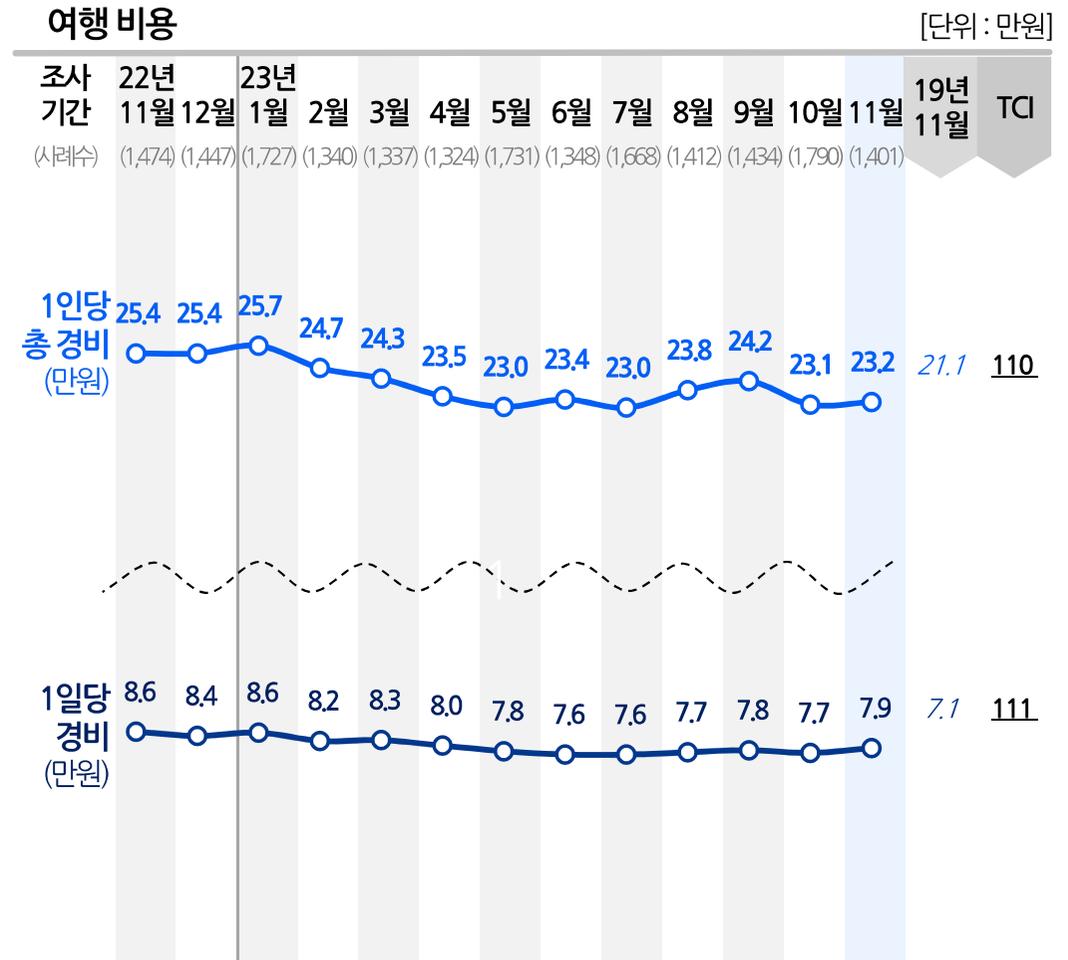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 평균 여행 기간은 1.94박이며, 2박 이내의 ‘단기 여행(1박 2일 48.8%, 2박 3일 29.6%)’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반면, 3박 이상의 ‘장기 여행’은 전월 대비 3.3%p 크게 감소함.
- 1인당 총 경비는 평균 23.2만원, 1일당 경비는 7.9만원으로 전월과 유사하며, 여행 기간과 1인당 총 경비, 1일당 경비의 TCI는 각각 98, 110, 111로 코로나 전 동월 대비 2% 짧은 기간(TCI 98)에 10% 더 많은 비용(TCI 110)을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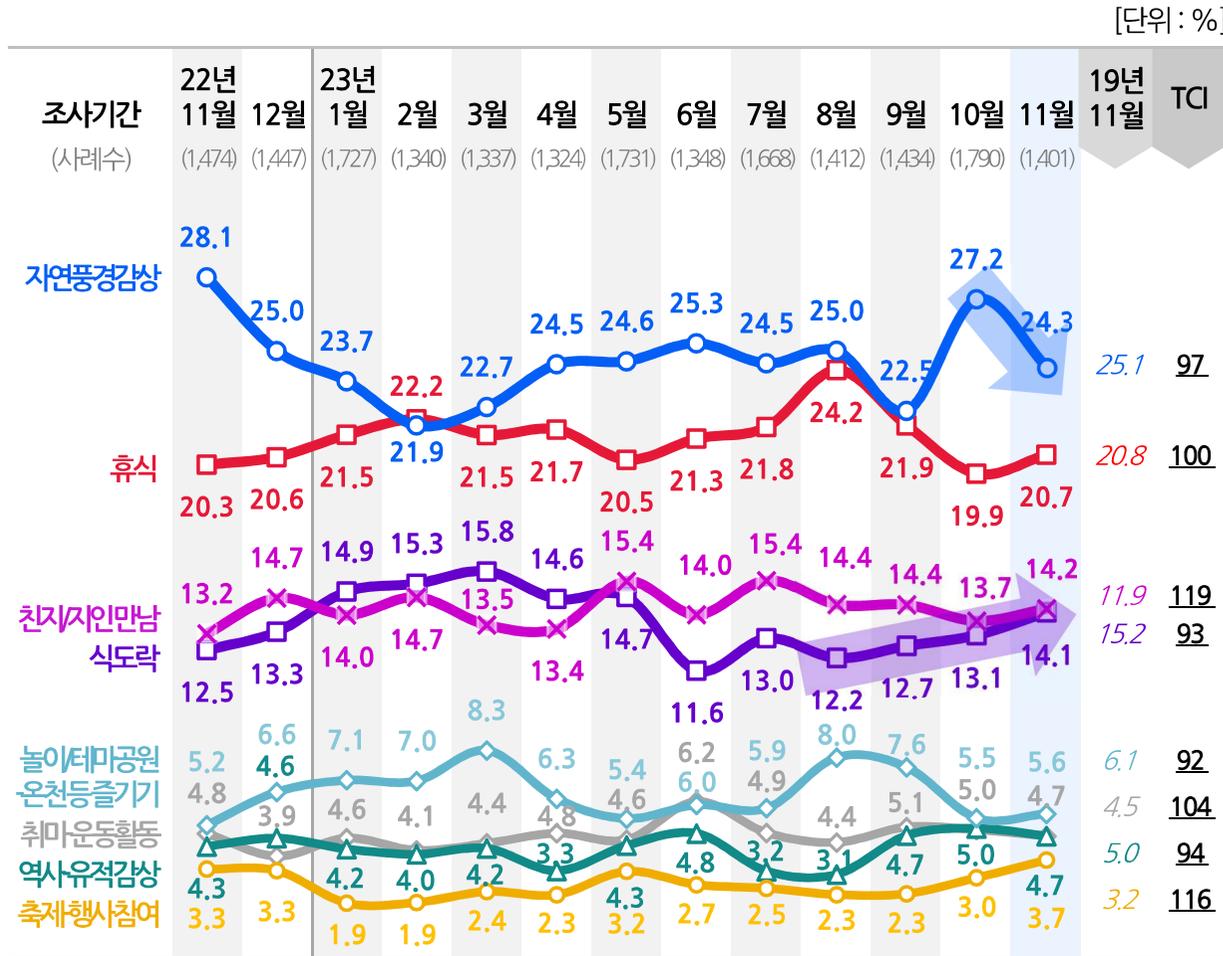
AA3-1. 최근에 다녀온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A17. 'OO'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가?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 국내여행의 주 활동은 '자연풍경감상'이 24.3%로 가장 높고, 이어 '휴식(20.7%)', '친지/지인 만남(14.2%)', '식도락(14.1%)' 순임.
- 전월 대비 '자연풍경감상'은 2.9%p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식도락'은 8월 이후 꾸준히 증가함.
- '자연풍경감상'은 △강원도, '식도락'은 △전라권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401)	(243)	(157)	(404)	(193)	(302)	(102)
자연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4.3	14.8▽	28.0	20.1▽	23.3	35.0▲	28.4
휴식	20.7	22.5	21.7	17.6	12.0▽	27.0▲	24.6
친지/친구 /친척 만나기	14.2	16.9	17.9	17.1▲	16.5	8.3▽	3.9▽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4.1	9.9▽	10.2	14.9	22.2▲	10.5▽	21.7▲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즐기기	5.6	4.5	3.2	6.5	5.2	6.9	5.9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7	5.0	7.0	3.2	5.2	4.3	6.8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7	4.9	5.7	6.5	6.7	1.7▽	1.0
축제-행사 참여	3.7	5.3	1.9	6.2▲	2.6	2.0	0.0▽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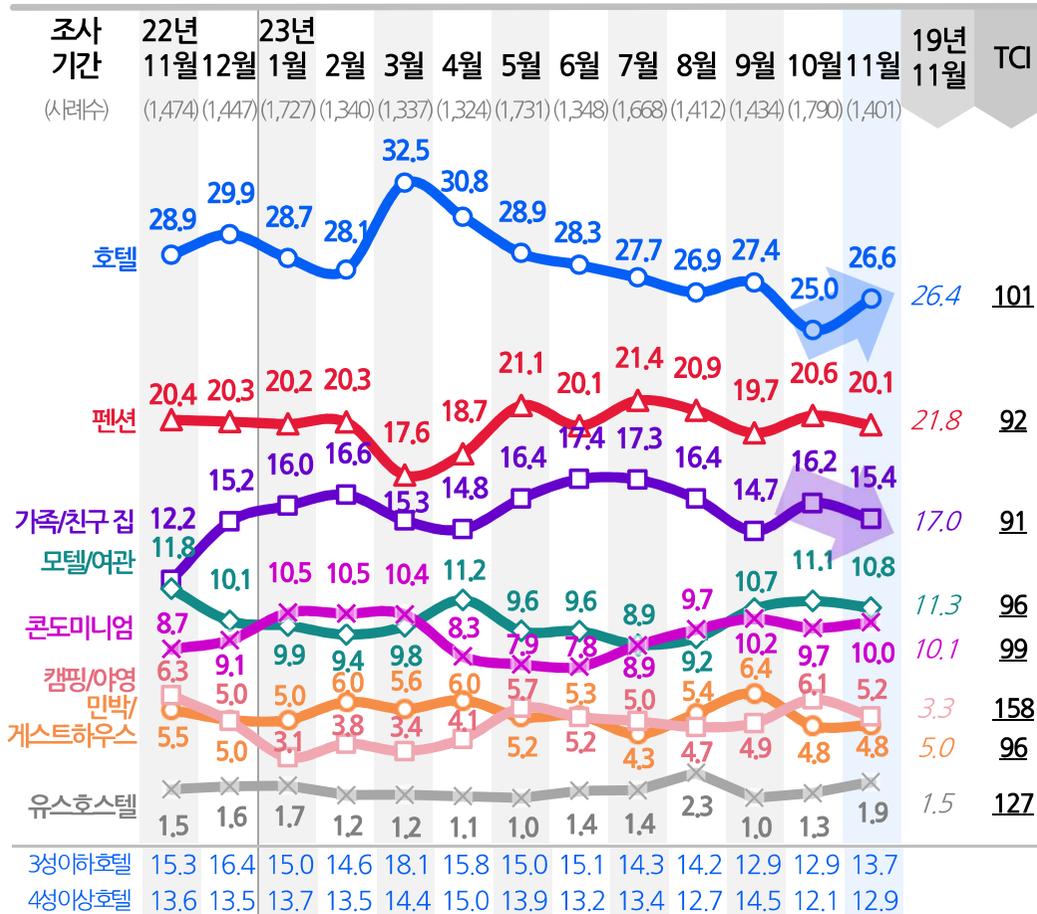
*▲▽ 표시는 전체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 '23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호텔' 이용률은 지난 1년간 최저였던 전월(10월) 대비 1.6%p 상승함.
- 숙박업소 선호 이유는 '관광지 접근성 및 교통편(20.1%)'과 '숙박 비용(19.6%)'이 가장 높으나 TCI는 69와 130으로 크게 엇갈림.
- 이는 코로나 전에 비해 '숙박 비용'에 민감해 진 반면, '접근성'은 그리 중시하지 않음을 보여줌.
- '청결/위생(13.7%)'의 중요도가 상승한 것은 '착한 가격의 청결/위생적'인 숙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국내여행 숙박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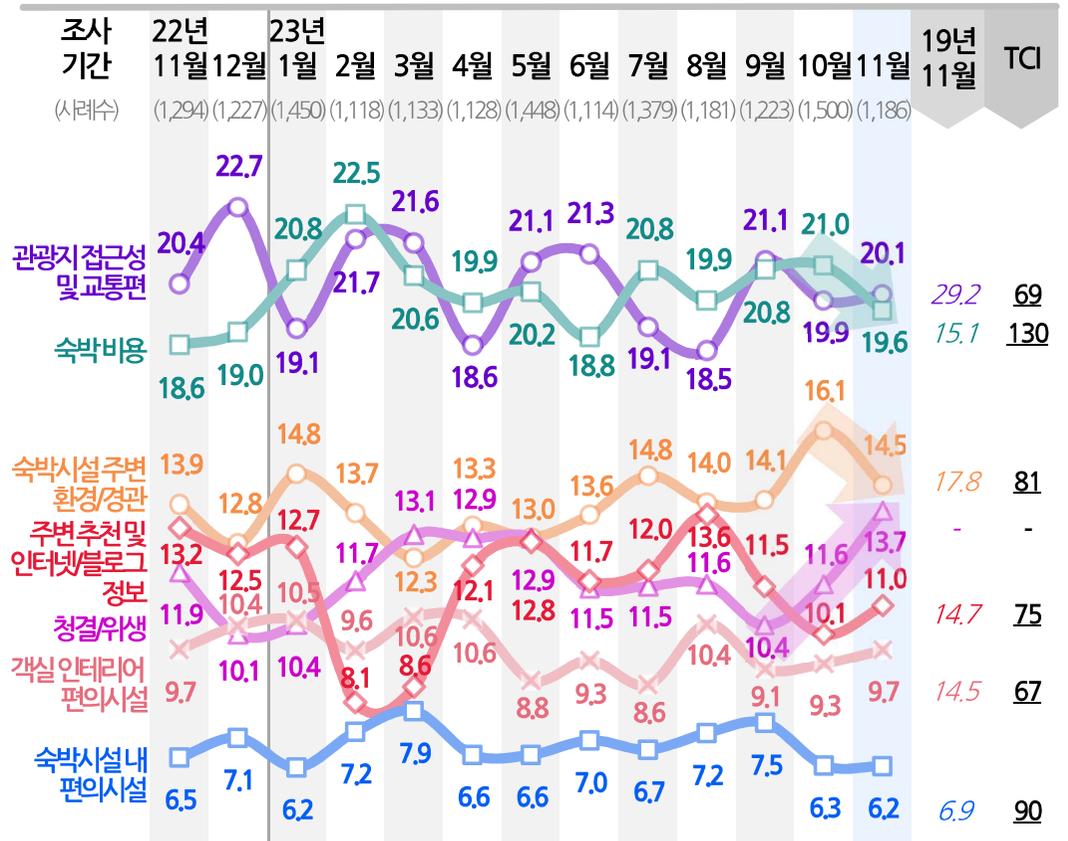
[단위: %]



AA10. 'OO'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숙박업소 선호이유

[단위: %]



* 사례수 1,186명, 가족/친구 집계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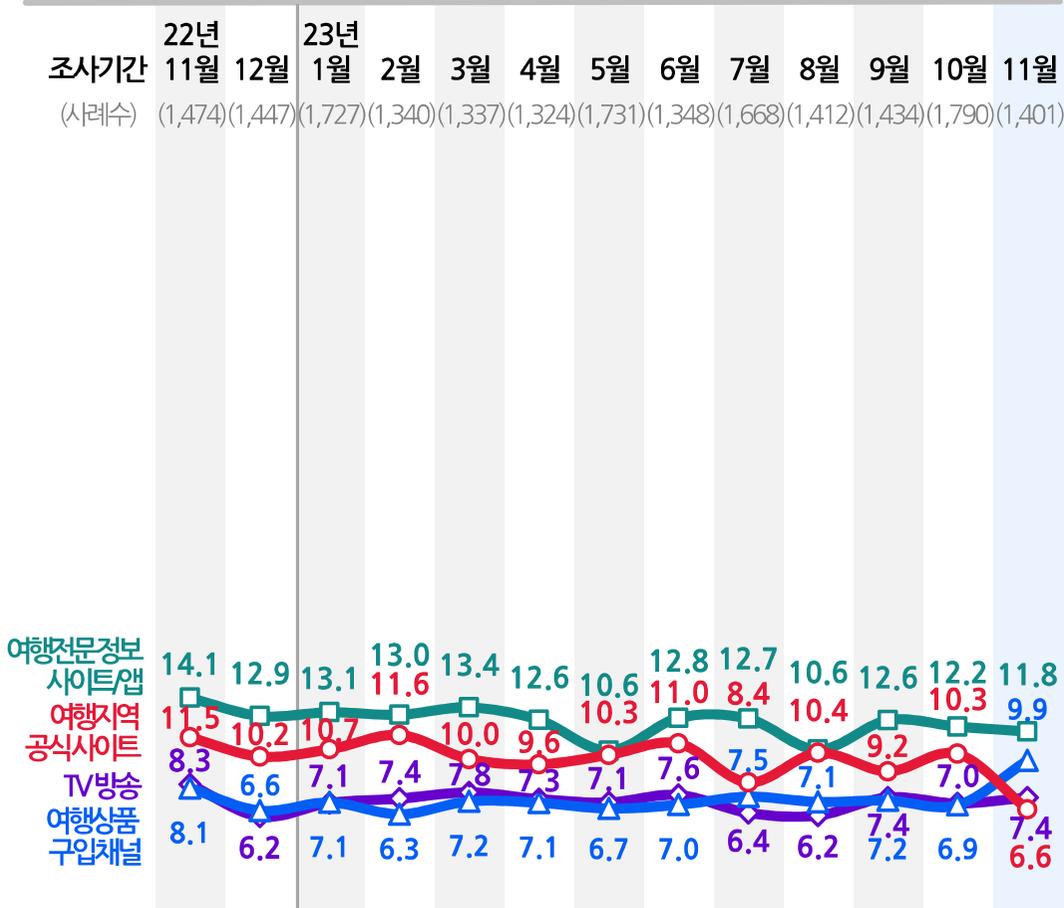
AA11-1. 이용하신 숙박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은 상업적이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공식 정보채널’에 비해 소비자 개인 중심인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활용도가 높음.
- 이는 공공기관과 상업기관 모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음을 시사함.
- 사적 채널 중 ‘지인추천(43.0%)’을 통한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이 가장 활발하며, 그 다음 ‘블로그(30.2%)’, ‘SNS(20.9%)’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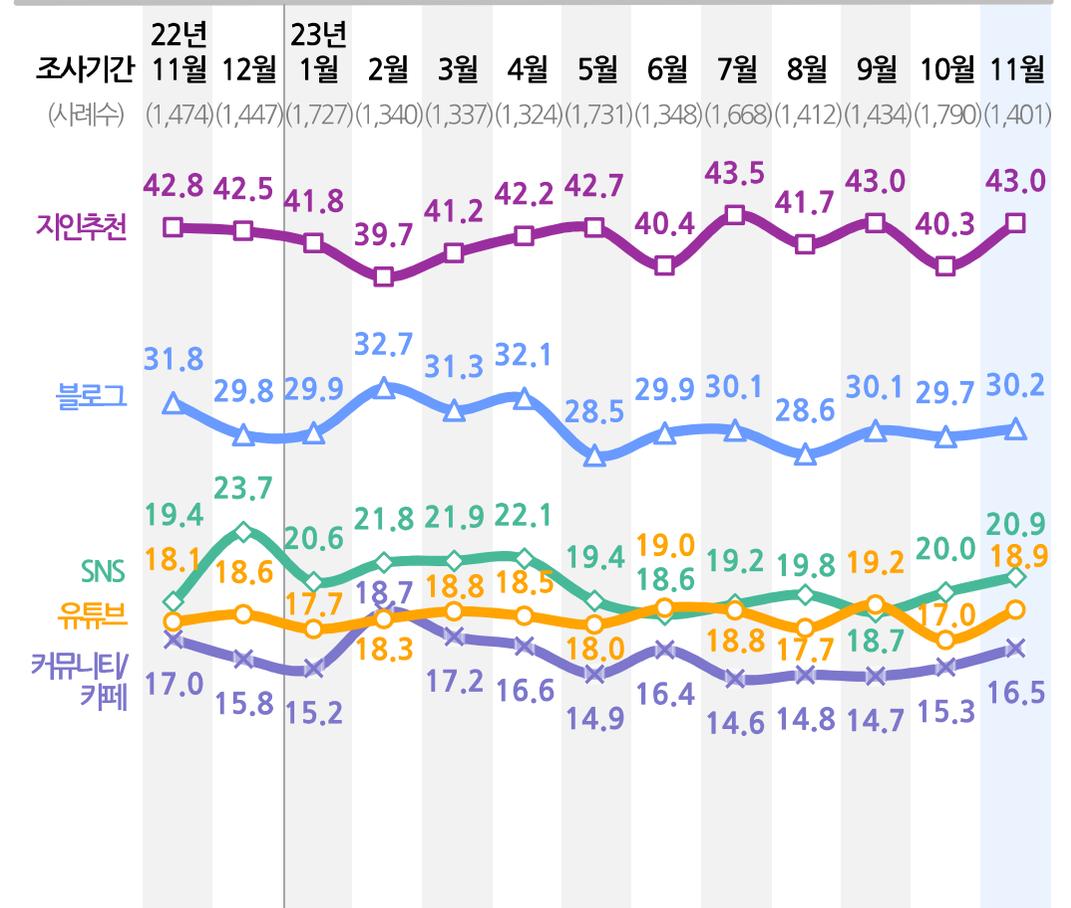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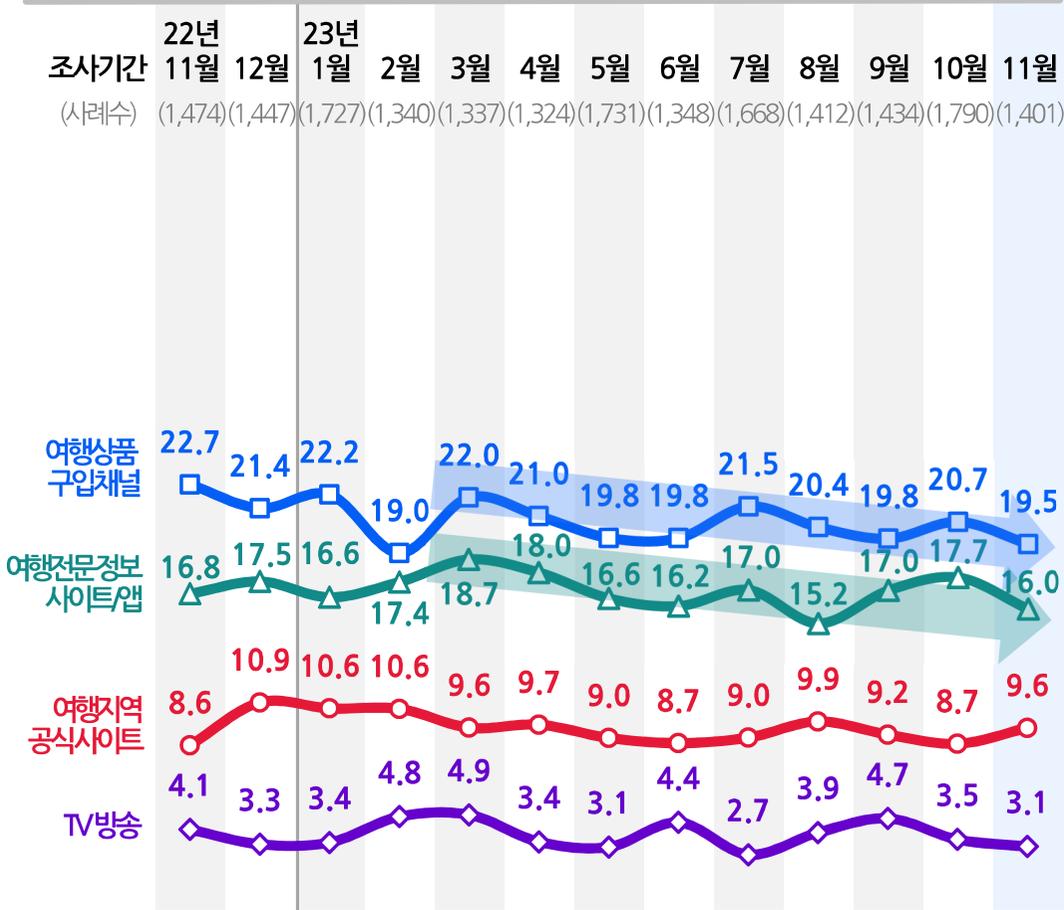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 여행지 내 '숙소' 관련 정보탐색에서도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대비 '전문/공식 정보채널' 활용은 부진함.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지인추천'이 1년 내내 30% 초반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10%p 차이로 2위에 머무르고 있음.
- 상업적인 숙소 정보 채널인 '여행상품구입채널'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 역시 개인정보 채널에 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년 3월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국내여행의 '지역'이나 '숙소' 정보 탐색 시 '지인추천'이 모두 1위인 점을 고려하면 '입소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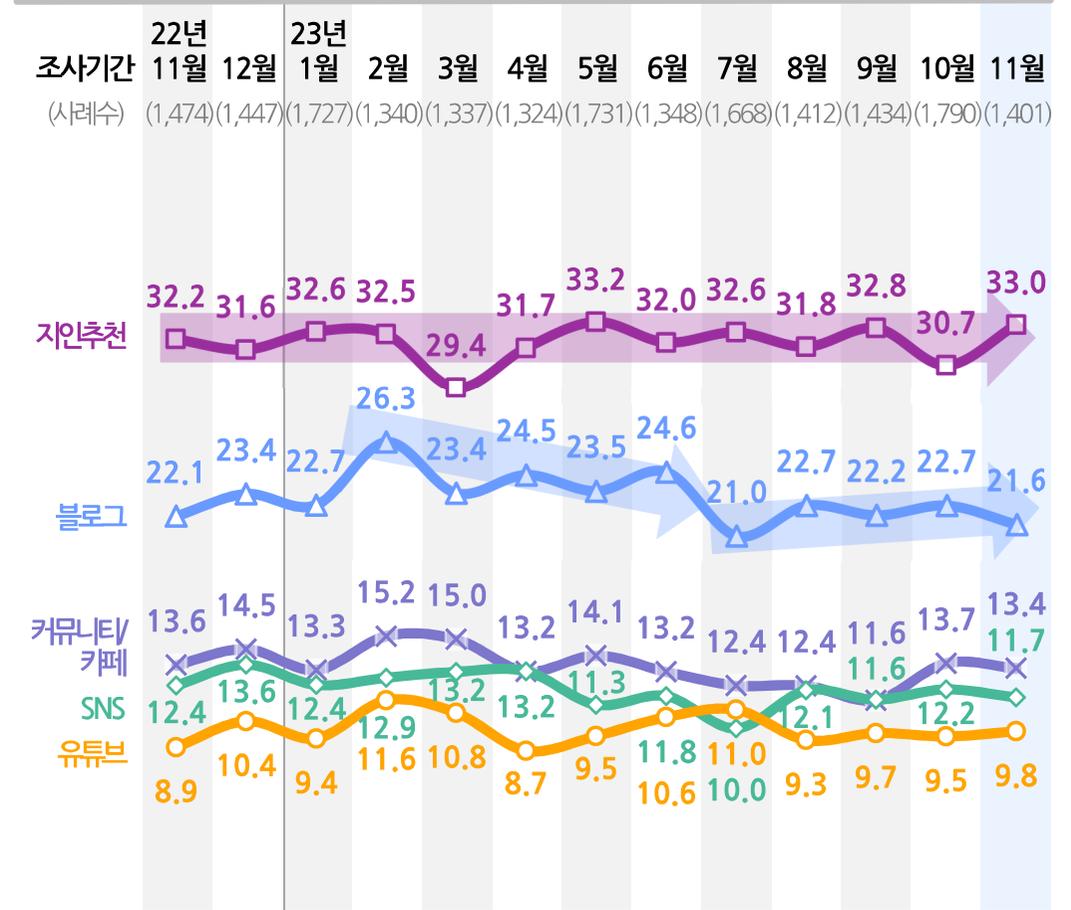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AA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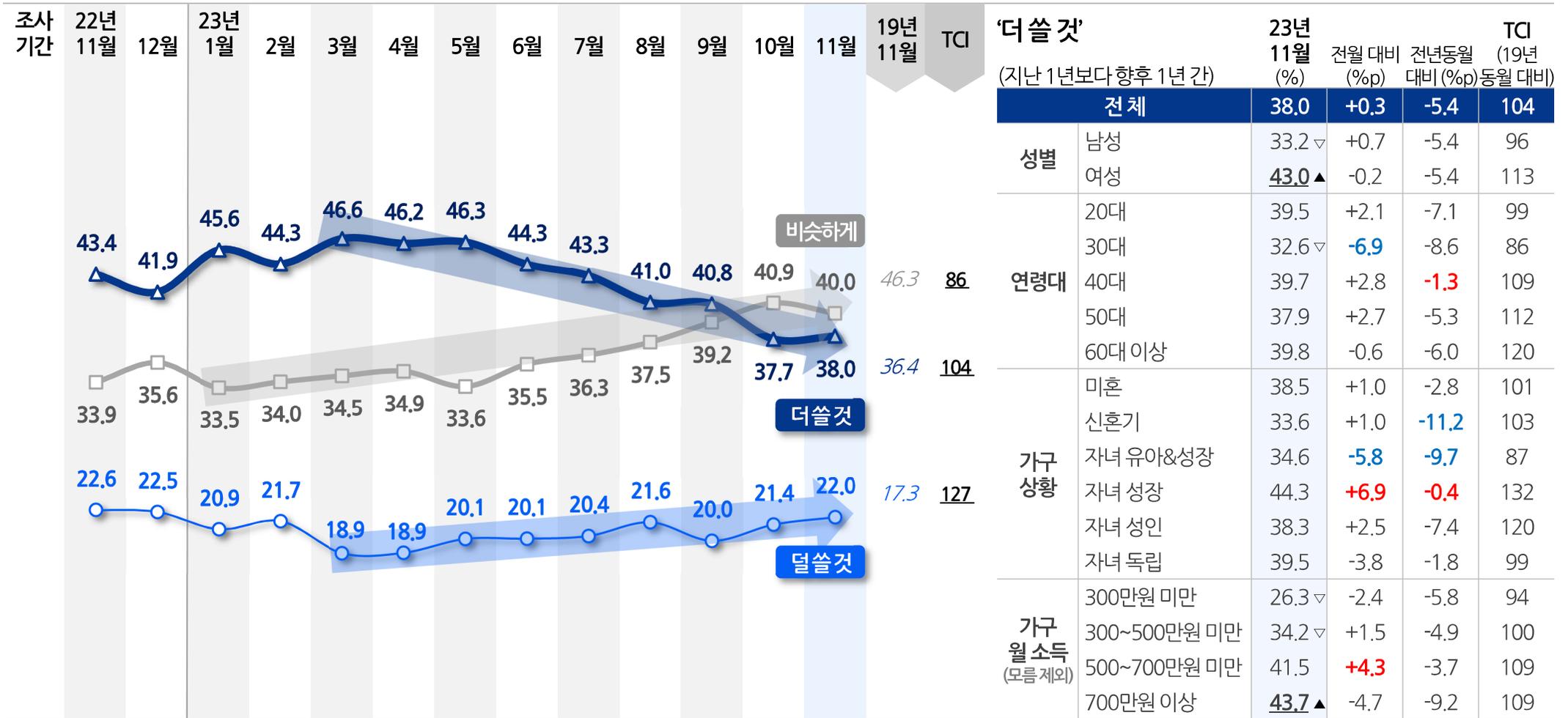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 관광·여행비를 ‘더 쓸 것’이란 반응은 감소한 반면, ‘비슷하게’는 증가해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
- 이에 더해 ‘덜 쓸 것’은 계속 증가해 국내 여행비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더 쓸 것’의 TCI는 104, ‘덜 쓸 것’의 TCI는 127로 국내여행 시장의 위축이 예상됨.
- 상대적으로 ‘더 쓸 것’ 응답은 △여성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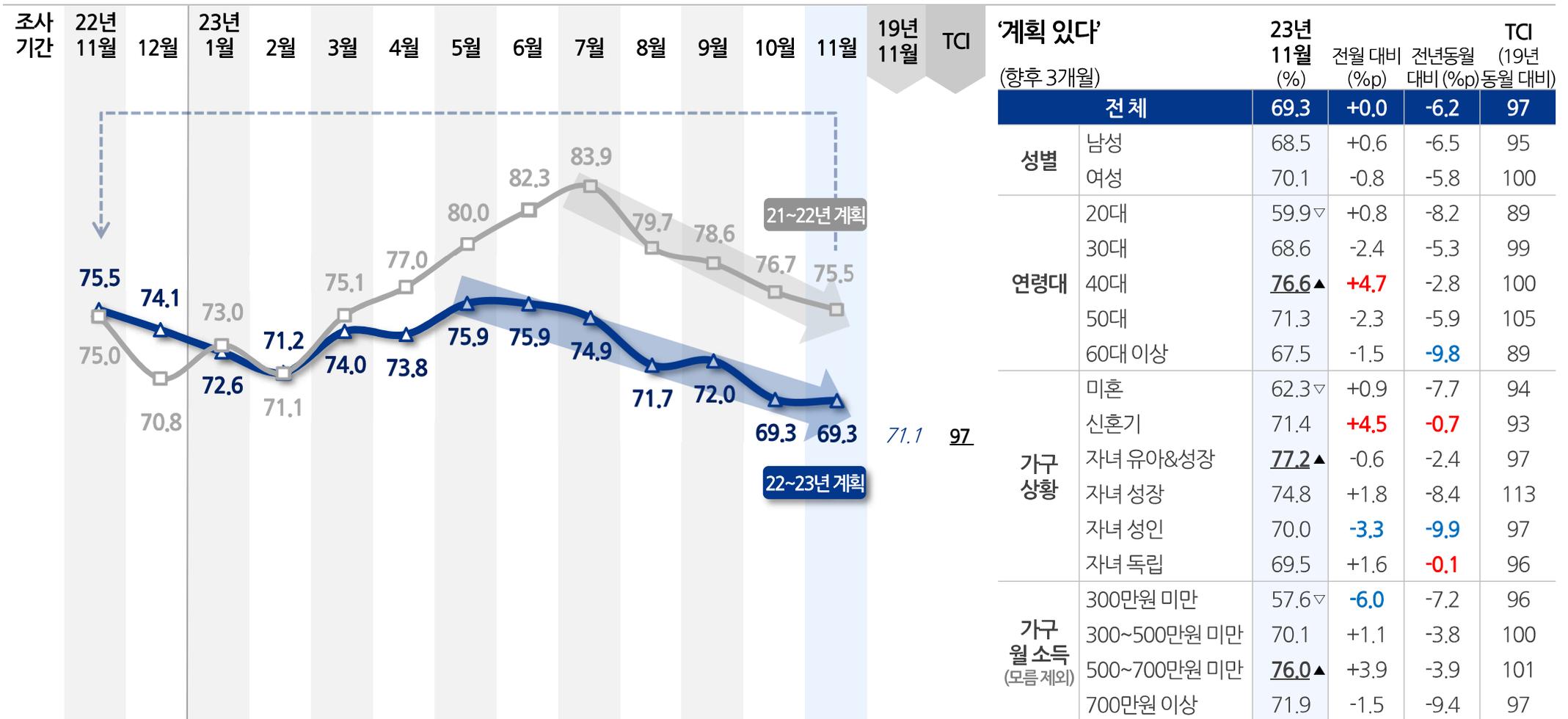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한(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 3개월 이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전월과 동일하게 69.3%로 지난 2년 내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음.
- 해외여행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국내여행 계획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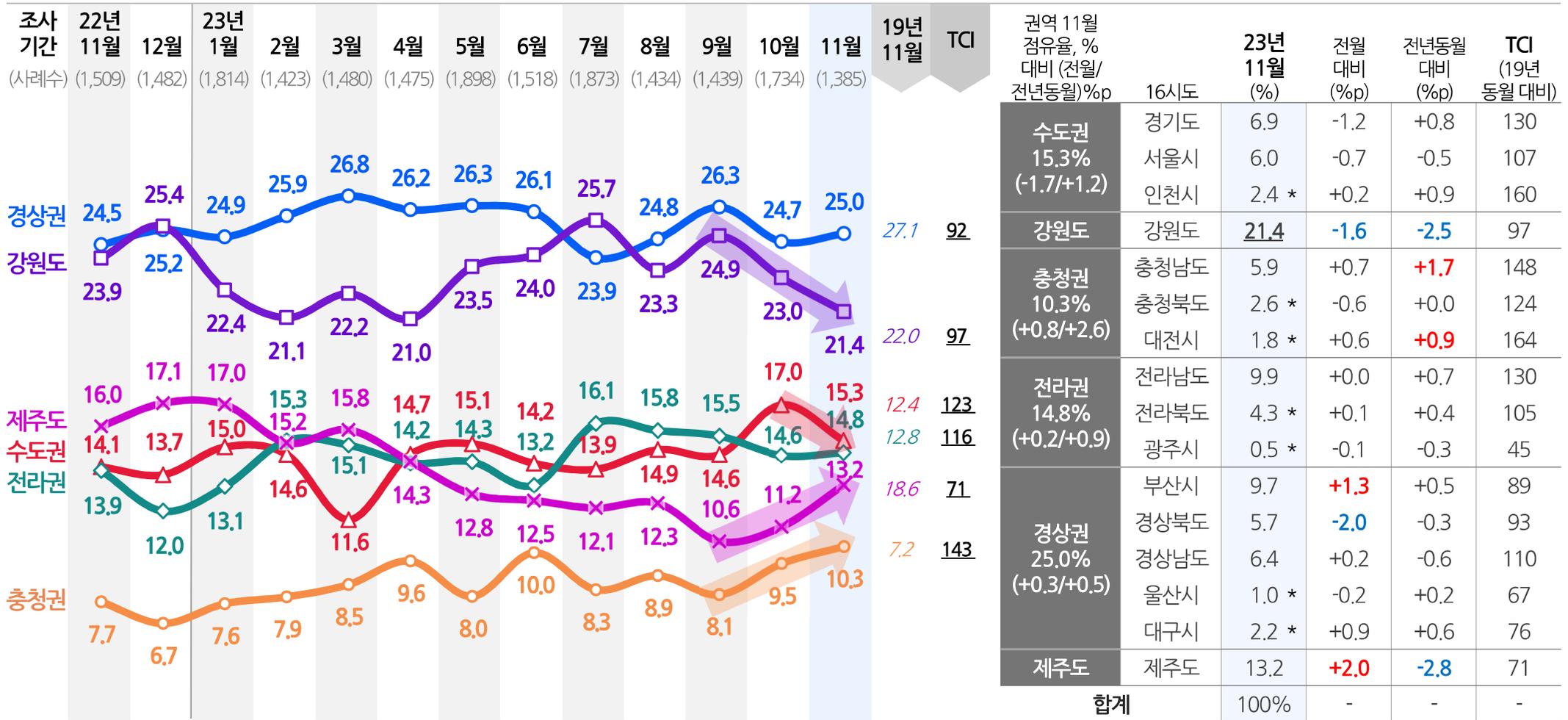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

-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은 '경상권(25.0%)'이 가장 높고, 이어 '강원도(21.4%)', '수도권(15.3%)', '전라권(14.8%)' 순임.
- '강원도'와 '수도권'은 각각 전월 대비 1.6%p, 1.7%p 감소한 반면, '제주도'와 '충청권' 여행 계획률은 10월 이후 상승세를 보임.
- TCI는 '수도권'이 123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71로 가장 낮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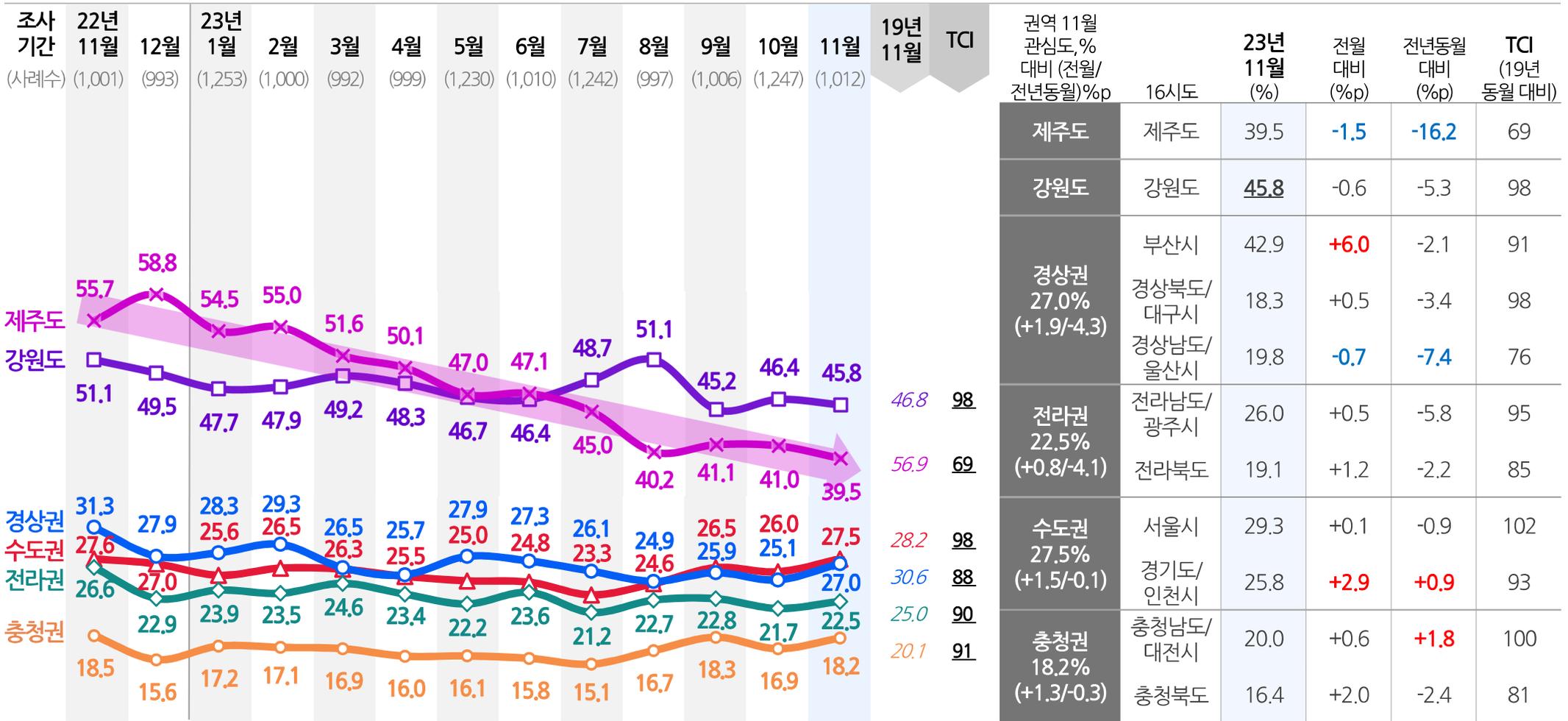
A2-1&2.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

- 지난 1년 간 국내여행 지역 관심도(% ,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해외여행의 재개로 전반적 하락세임.
- '제주도'는 지난 7월 '강원도'에 밀려 2위로 떨어진 후 계속 하락해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감(39.5%).
- 이는 전월 대비 1.5%p, 전년 동월 대비 16.2%p 하락, TCI 69로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함.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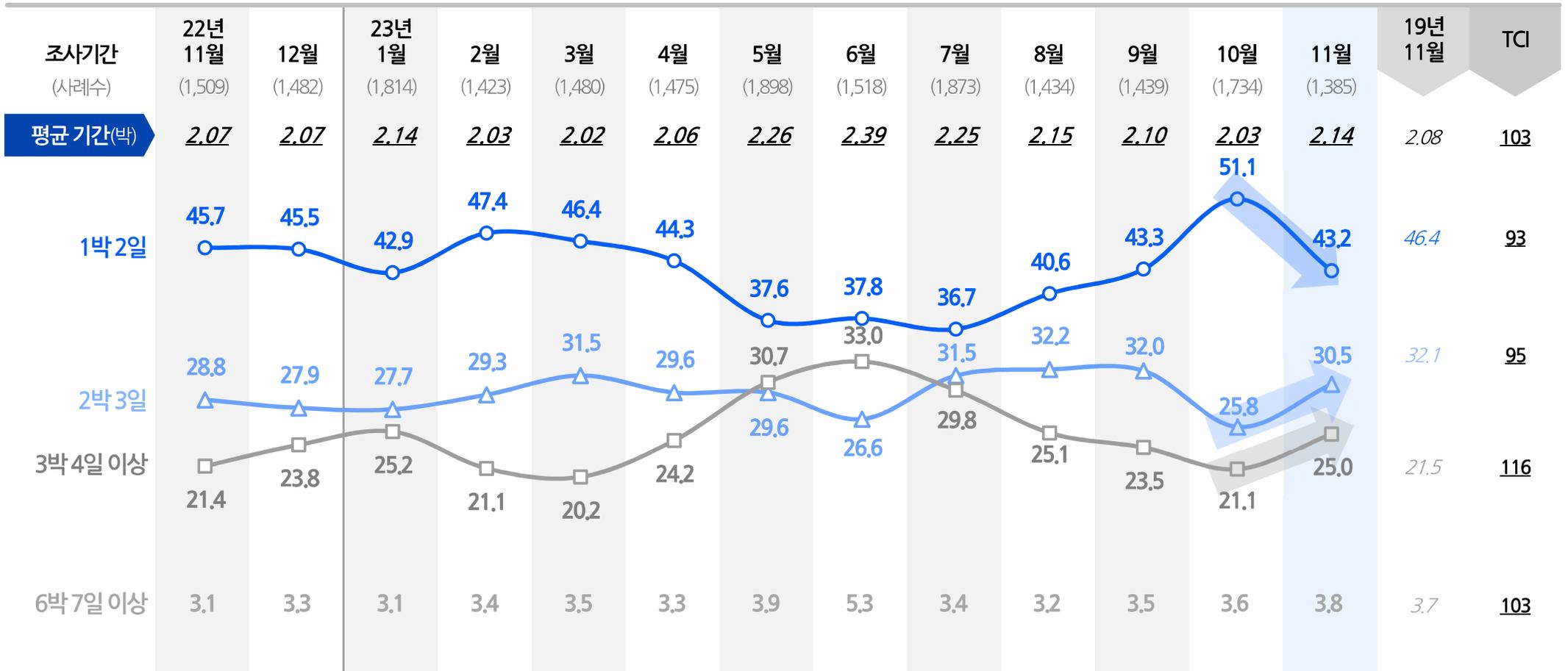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

- 당월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은 평균 2.14박으로 전월 대비 소폭 늘어남.
- 계획기간 '1박 2일'은 전월 대비 7.9%p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2박 3일'은 4.7%p, '3박 4일'은 3.9%p 상승해 연말연시 연휴 효과를 알 수 있음.
- 여행 계획 기간 평균의 TCI는 103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다소 길어졌고, '3박 4일 이상'의 TCI는 116으로 높음.

계획 중인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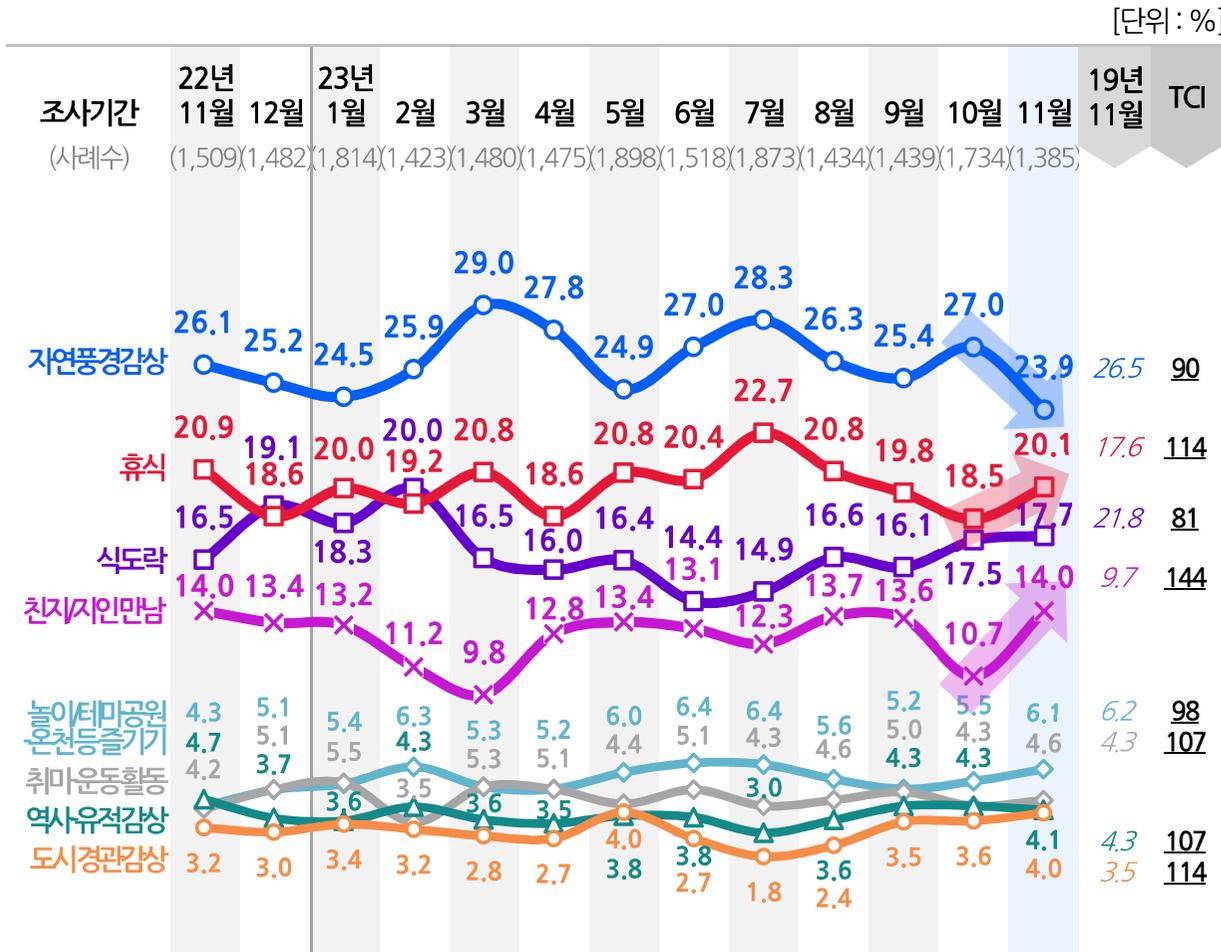
[단위: %]



A3-1. 계획하고 계신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 계획 중인 숙박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풍경감상(23.9%)’, ‘휴식(20.1%)’, ‘식도락(17.7%)’ 등의 순임.
- ‘자연풍경감상’은 전월 대비 3.1%p 하락한 반면, ‘휴식’과 ‘친지/지인 만남’은 상승함.
- 특히, ‘휴식’을 위한 여행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친지/지인 만남’을 위한 여행으로 △수도권과 △경상권 여행 계획이 높음.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385)	(212)	(143)	(347)	(204)	(296)	(183)
자연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3.9	10.8▽	17.5	18.8▽	24.0	36.7▲	33.2▲
휴식	20.1	18.8	13.3▽	17.3	15.2	24.9▲	29.5▲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7.7	10.4▽	18.9	20.8	22.1	17.2	15.3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4.0	24.1▲	18.1	18.8▲	13.2	5.7▽	3.8▽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6.1	9.9▲	9.1	5.2	5.4	4.3	4.9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6	3.3	4.9	3.8	6.4	4.7	5.4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1	3.3	6.3	5.8	6.9▲	1.7▽	1.1▽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4.0	5.2	5.6	4.9	3.9	1.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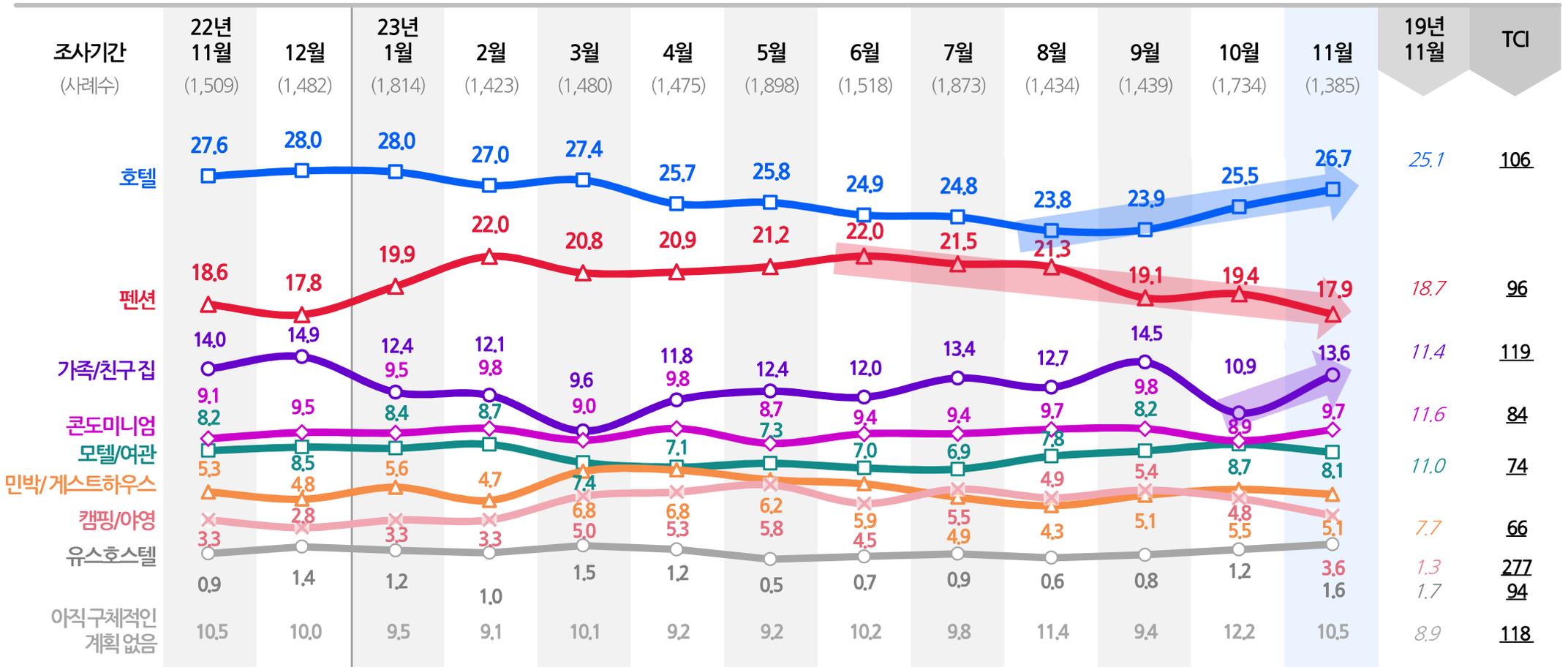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7.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6.7%)’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펜션(17.9%)’, ‘가족/친구 집(13.6%)’ 등의 순임.
- ‘호텔’은 '23년 9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펜션’ 숙박 계획은 감소함.
- ‘가족/친구 집’은 전월 대비 2.7%p 크게 상승하였고, TCI도 119로 코로나 이전 대비 숙박 고려율이 증가함.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단위: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오)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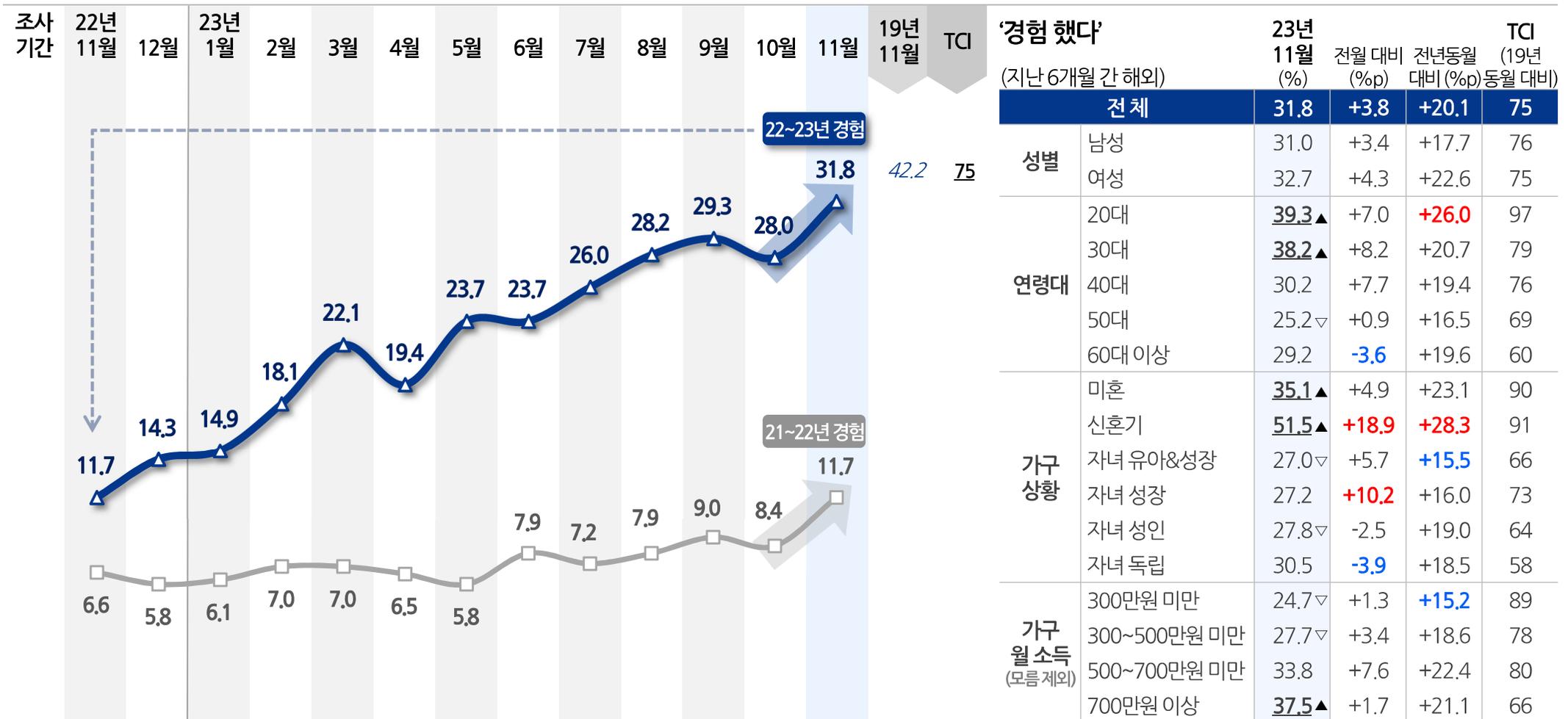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 6개월)

- ‘지난 6개월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전월대비 3.8%p 상승해 당월 31.8%로 지난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TCI는 75로 코로나 이전 동월(19년 11월 42.2%)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음.
- 해외여행 경험률은 △20~30대 △미혼 △신혼기 △가구 월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SQ4-0-1.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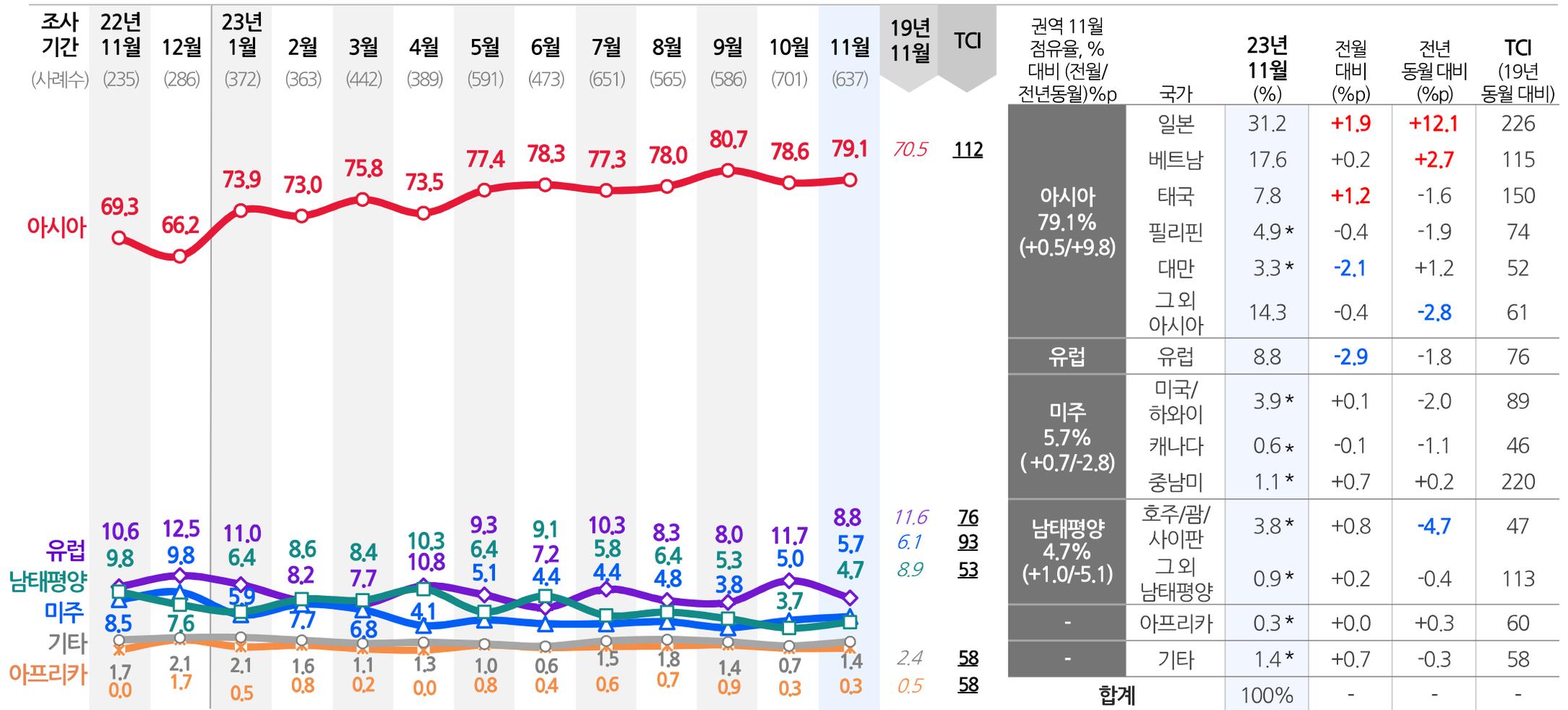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지역 (지난 6개월)

- 해외여행지 중 '아시아'의 점유율은 79.1%로 꾸준히 강세를 유지함.
- 아시아 국가별 점유율은 '일본(31.2%)'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베트남(17.6%)', '태국(7.8%)', '필리핀(4.9%)', '대만(3.3%)' 순임.
- 해외여행지 점유율 TCI 역시 '일본' 226, '베트남' 115, '태국' 150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상승함.
- '유럽'은 전월대비 2.9%p 하락하였고, TCI 또한 76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점유율이 감소함.

[단위: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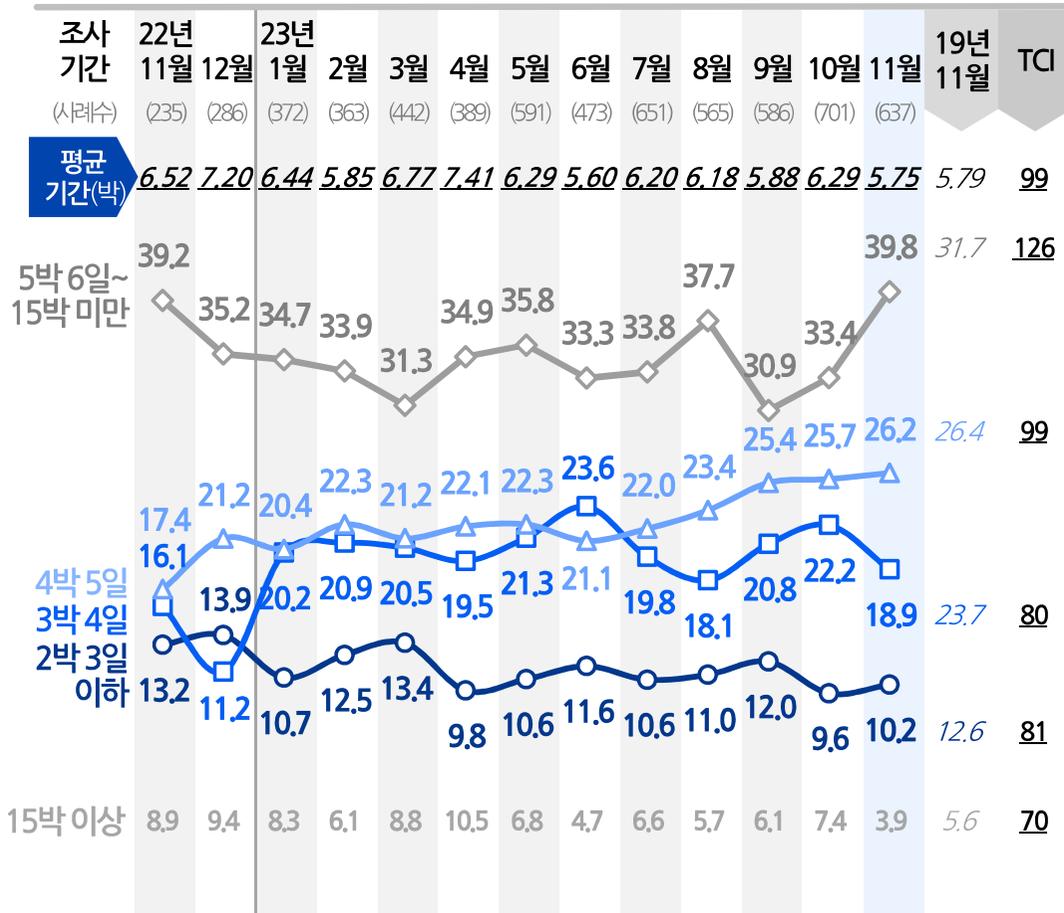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 지난 6개월 간 다녀온 해외여행의 평균기간은 5.75박, 1인당 총 경비 176만원, 1일당 경비 26.1만원임.
- 여행기간은 전월대비 0.54박, 1인당 총 경비는 19.6만원 감소함.
- 주요 지표의 TCI는 여행기간 99, 1인당 총 경비 117, 1일당 경비 118로 코로나 이전 대비 기간은 유사한 반면 지출은 커짐.

여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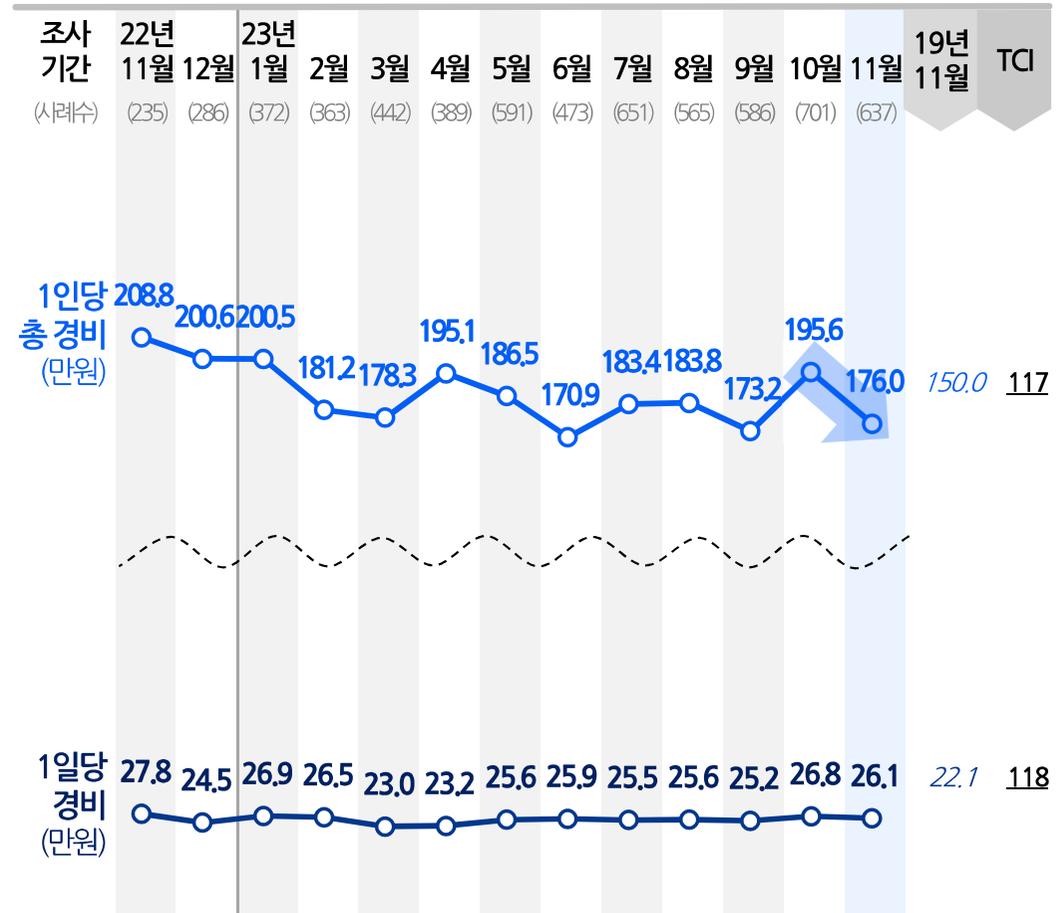
[단위: %]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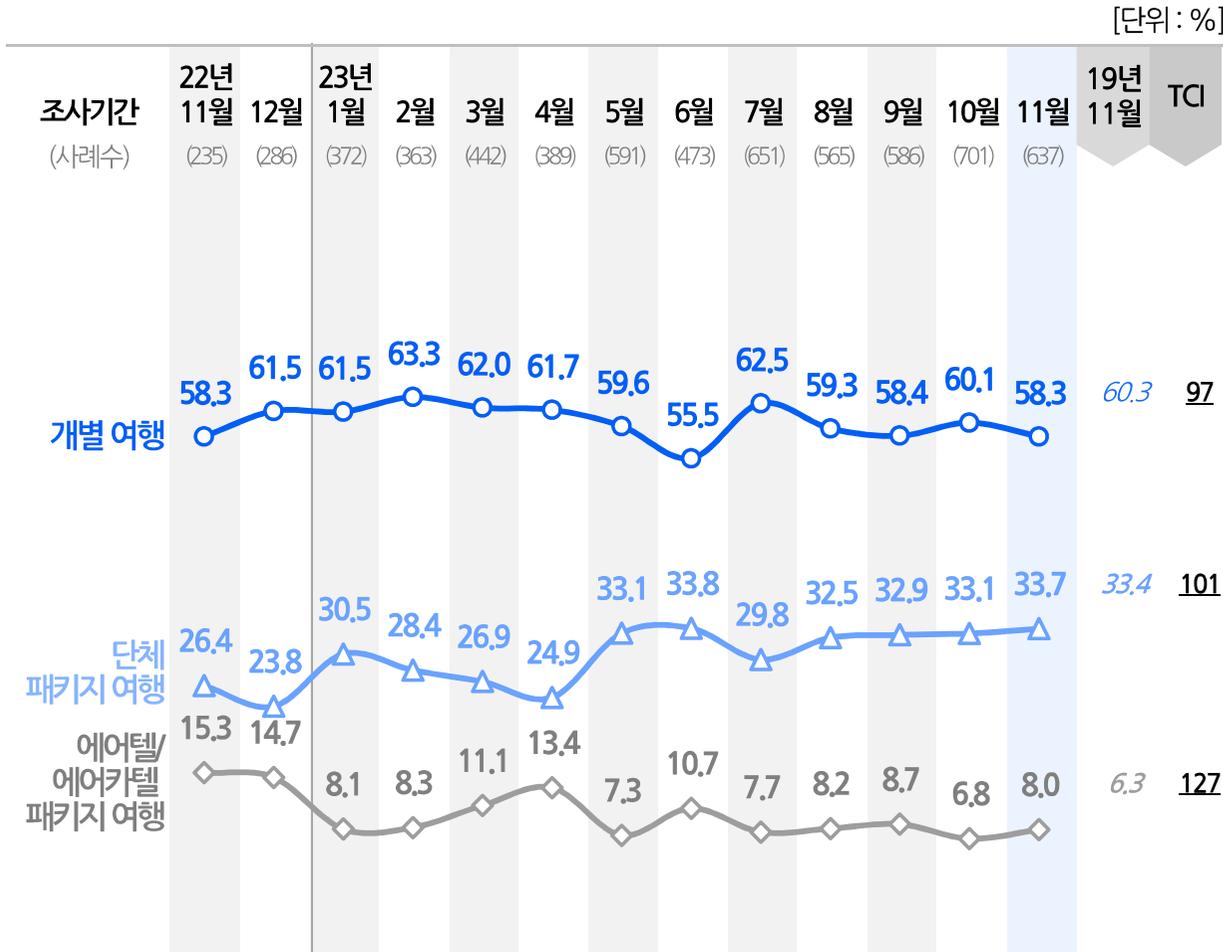
[단위: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다가?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여행(FIT)’이 58.3%, ‘단체 패키지’는 33.7%,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8.0%임.
- TCI의 경우 ‘개별여행’은 97, ‘단체 패키지’는 101, ‘에어텔/에어카텔’은 127로 패키지 여행이 다소 커짐.
- ‘개별 여행’은 △아시아,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과 △남태평양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음.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637)	(504)	(36)	(56)	(56)	(2)
개별 여행	58.3	60.7▲	55.8	43.0▽	43.0▽	50.2
단체 패키지 여행	33.7	30.9▽	38.7	53.5▲	53.5▲	49.8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0	8.3	5.5	3.5	3.5	0.0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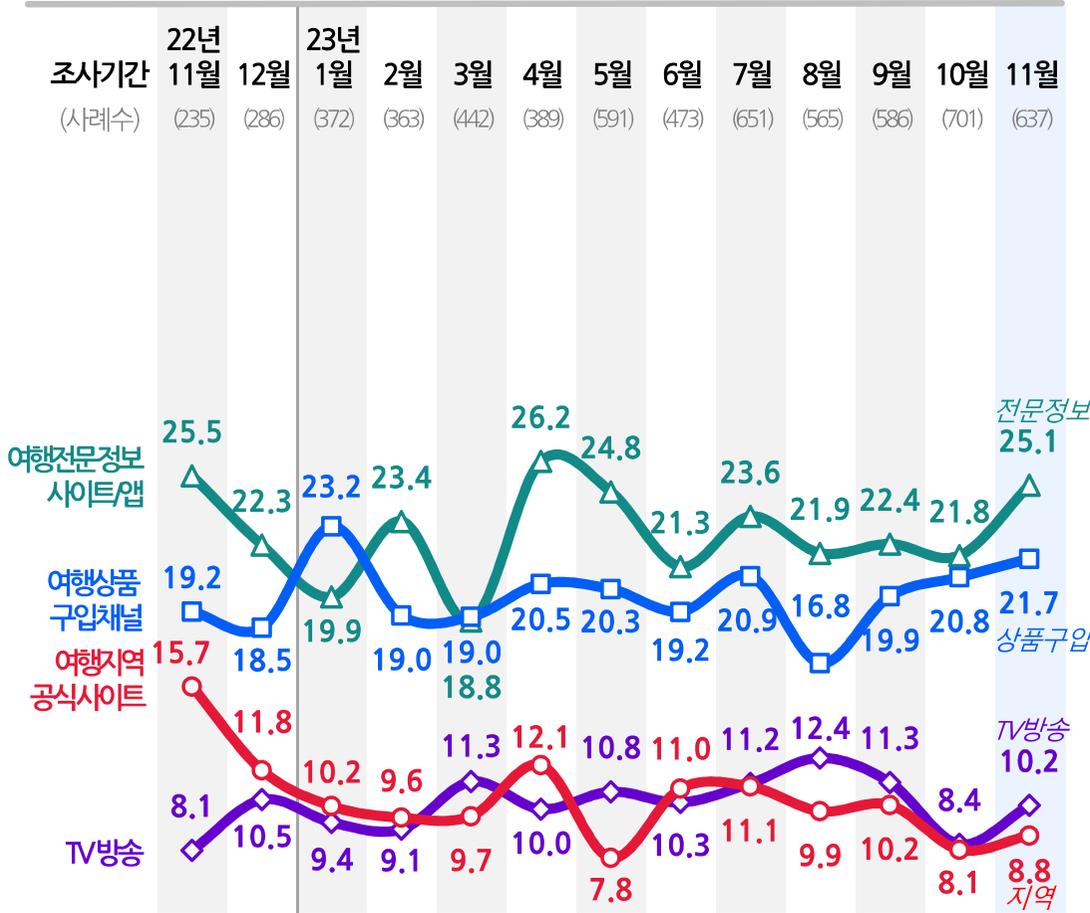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5. 해외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해외여행지 정보 탐색 시 '전문/공식 정보채널' 보다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만큼 심하지 않음.
- 전월대비 모든 채널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특히 '지인추천'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 활용도가 각 3%p 상승함.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중에서도 '블로그(37.4%)'와 '지인추천(34.9%)'의 강세가 뚜렷하고, '유튜브' 활용도가 9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월 30.1%로 최근 1년 내 최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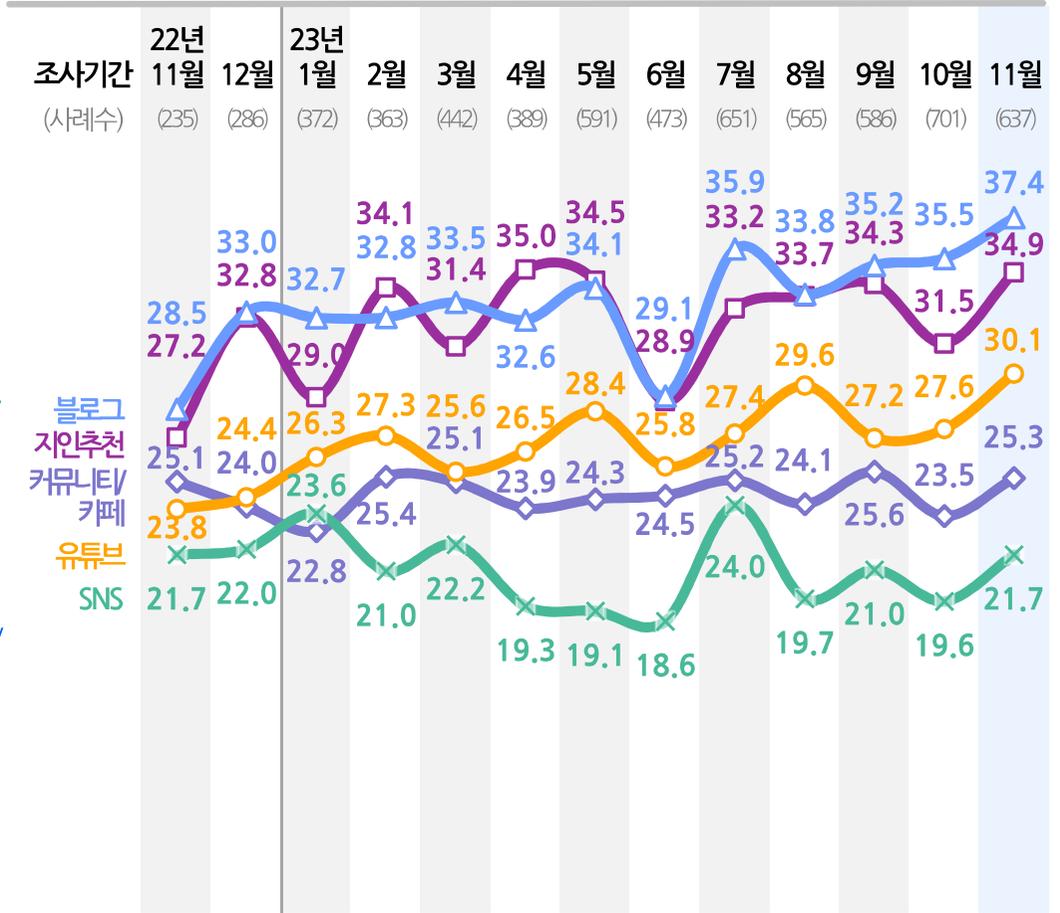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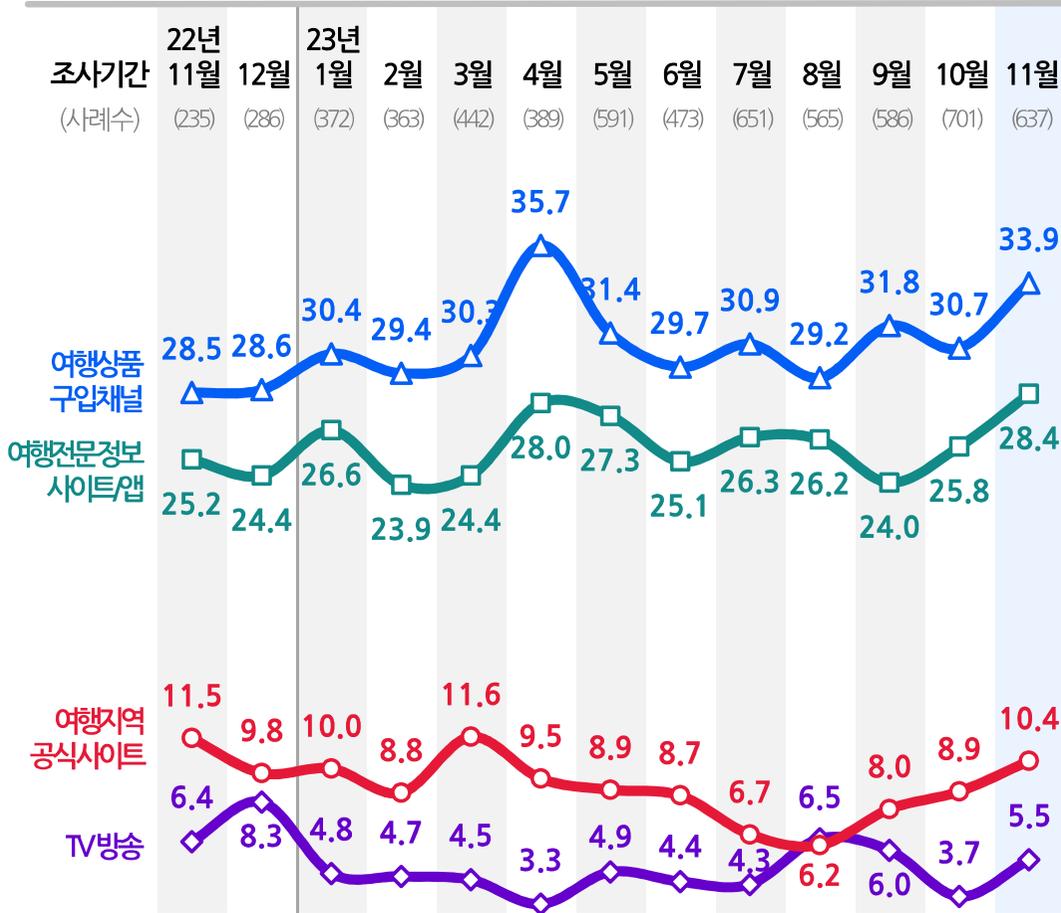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가?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여행지)

6.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시에는 '여행상품 구입채널(33.9%)'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28.4%)' 등 '전문/공식 정보채널' 활용이 많아 '여행지' 탐색과는 다른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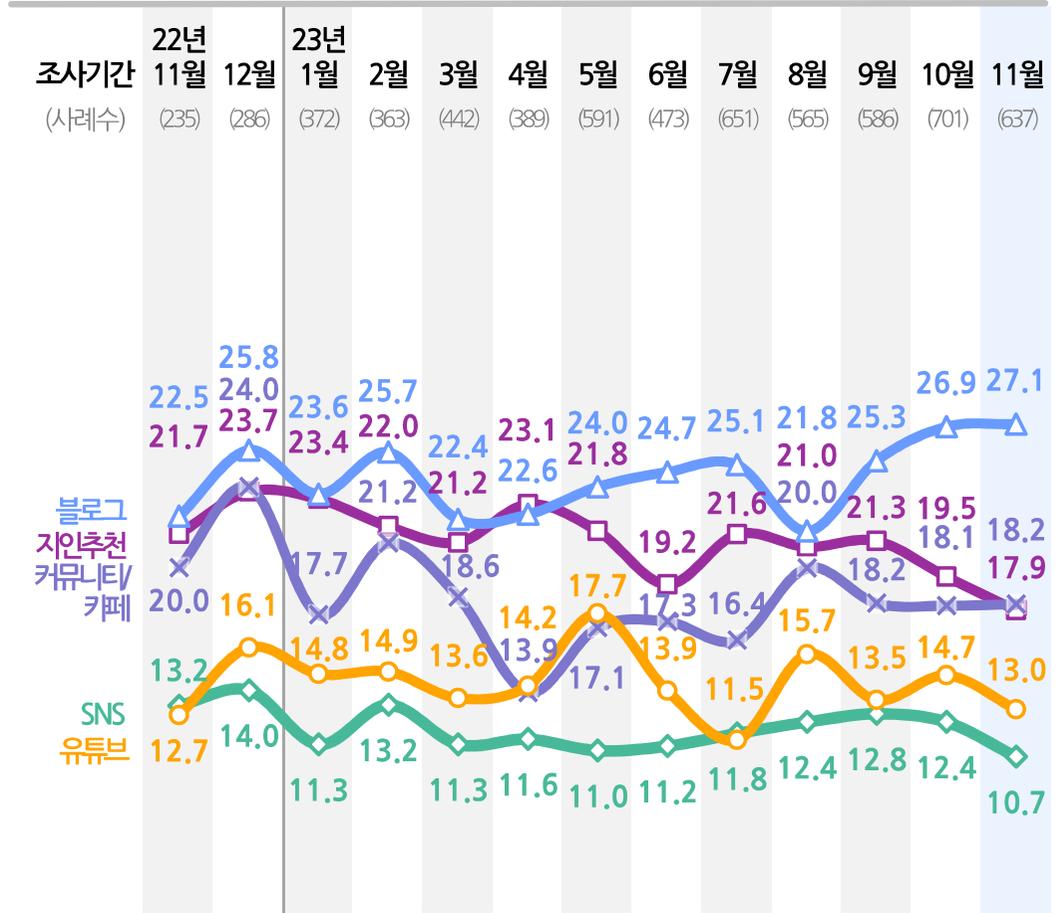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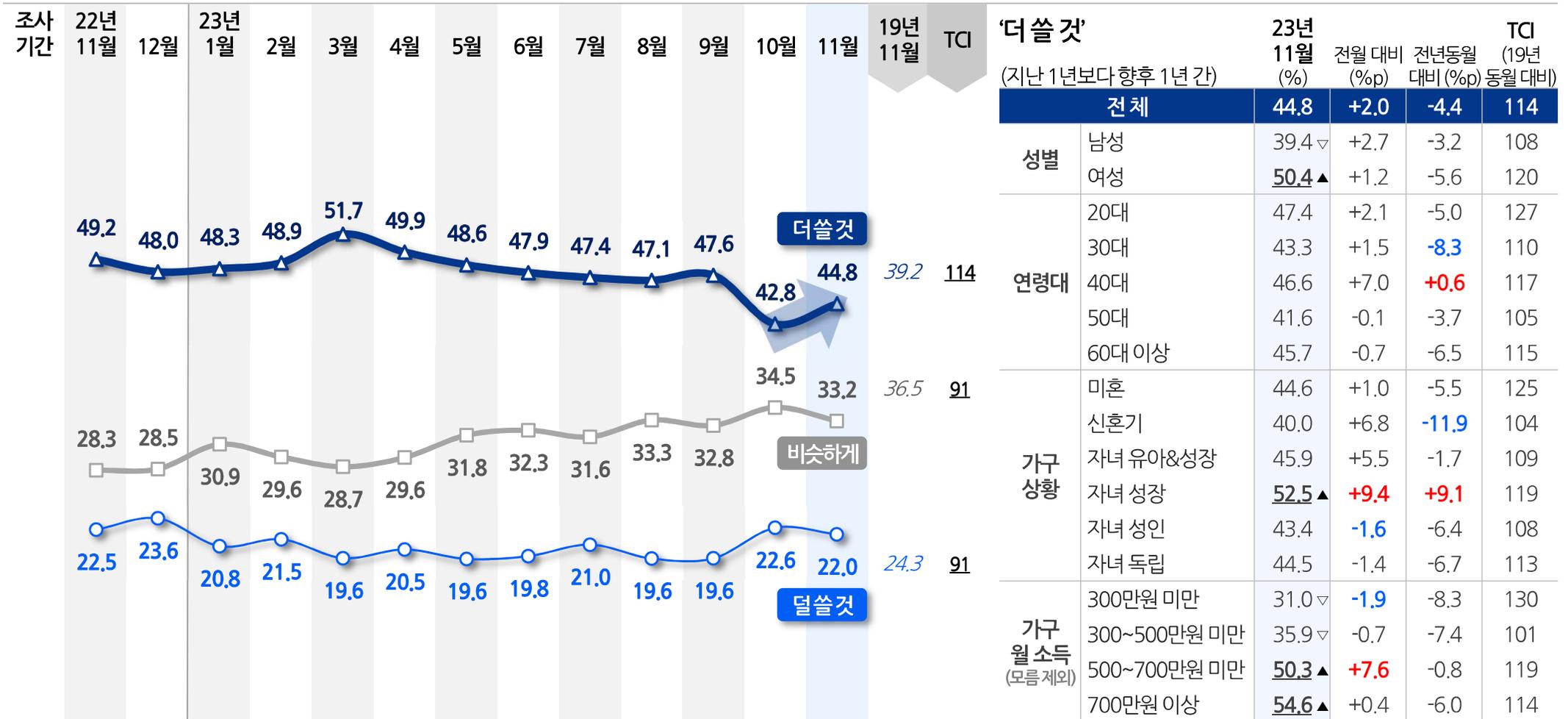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 해외 여행 시 관광·여행비를 '더 쓸 것'이란 응답은 44.8%로 전월대비 상승함.
- '더 쓸 것'의 TCI는 114, '덜 쓸 것'의 TCI는 91로 해외여행비 지출에 대한 의지가 코로나 이전 대비 큼을 알 수 있음.
- 해외 여행비를 '더 쓸 것' 응답은 △여성 △자녀 성장기 △가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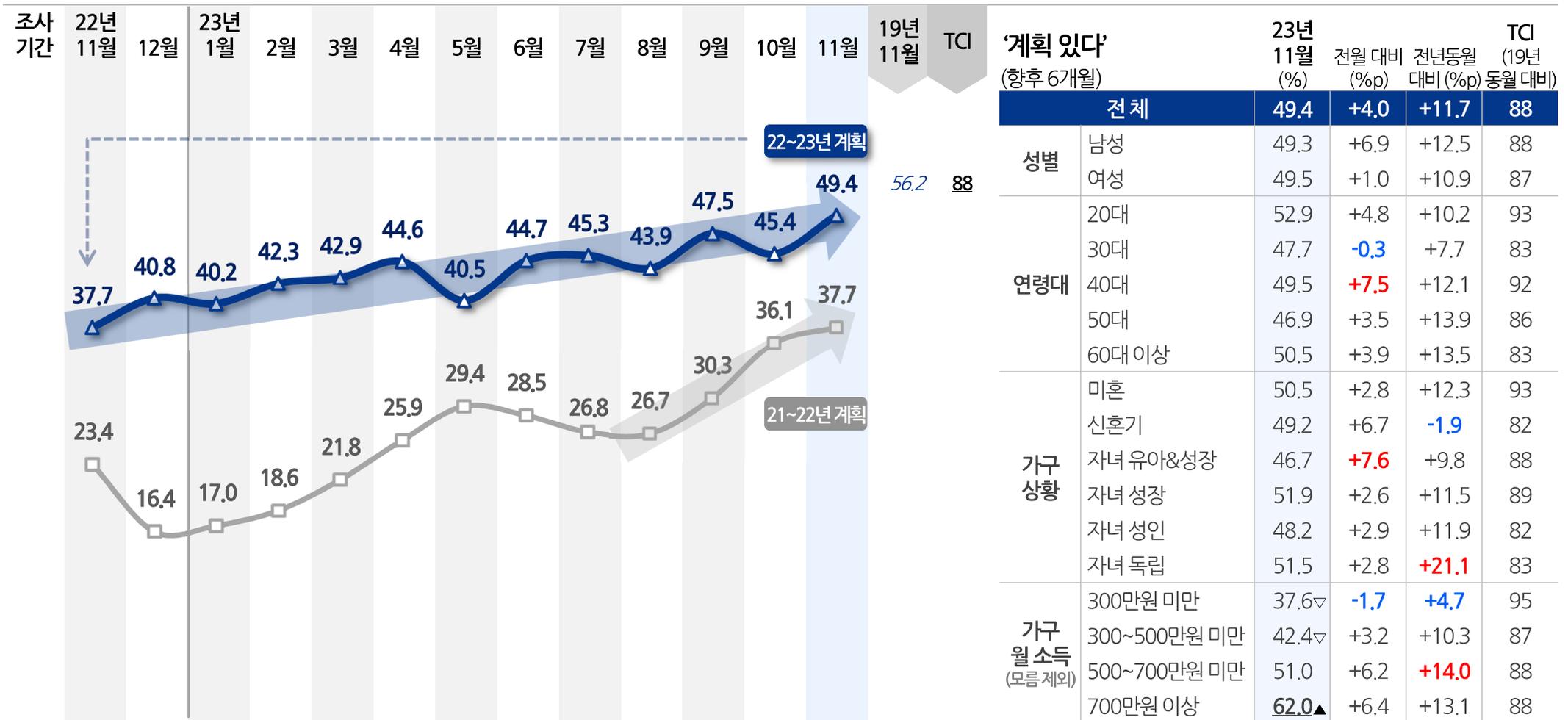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4. 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계획률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은 꾸준히 올라 50%를 앞두고 있음.
- TCI는 88로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56.2%)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여행 계획률은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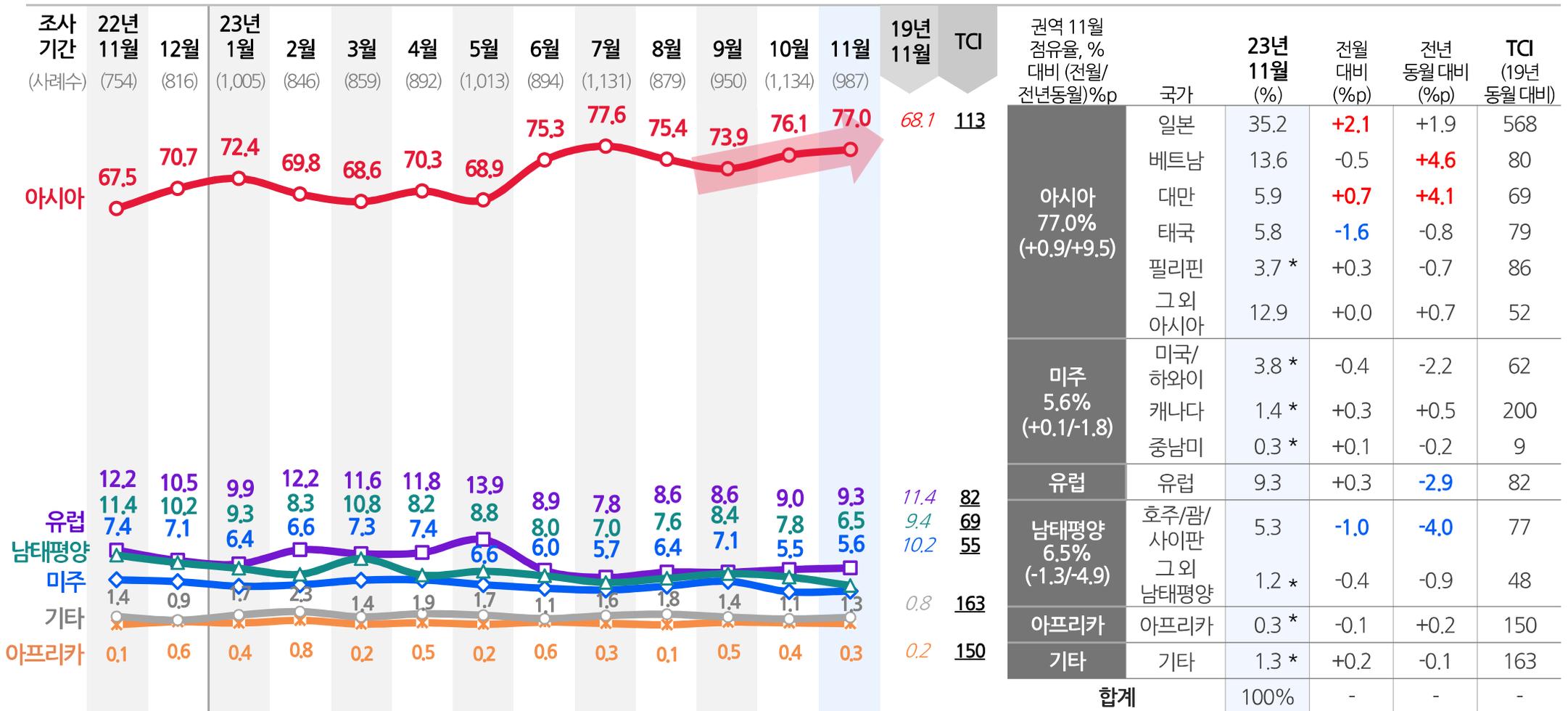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가 77.0%로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 ‘일본(35.2%)’이 가장 높음.
- 아시아 다음으로 ‘유럽(9.3%)’, ‘남태평양(6.5%)’, ‘미주(5.6%)’의 순임.
- TCI는 아시아가 113으로 '19년 대비 증가한 반면, 유럽(82), 남태평양(69), 미주(55) 여행 계획은 크게 감소함.

[단위: %]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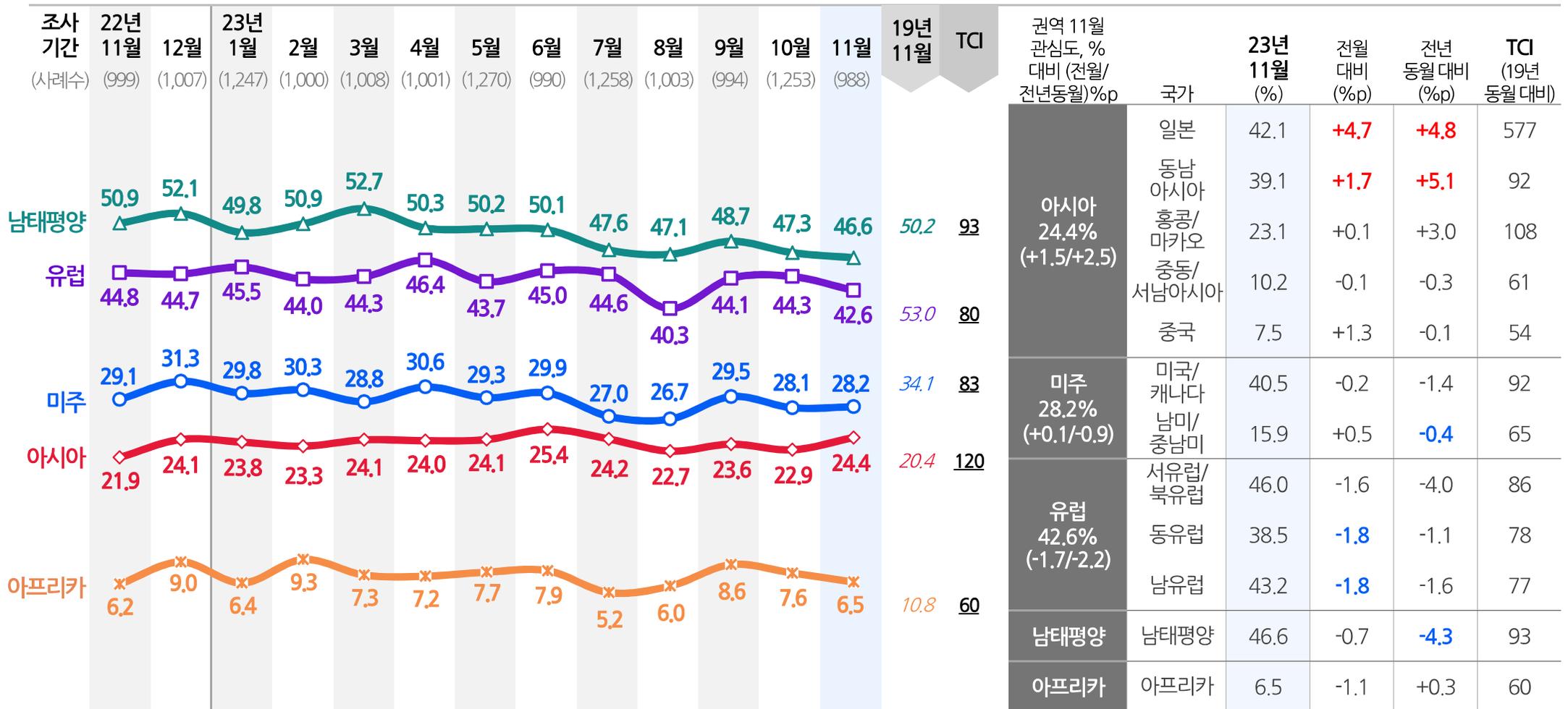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5% 이하 해석에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남태평양(46.6%)', '유럽(42.6%)', '미주(28.2%)' 순임. 실제 여행 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 성격이 강함.
- TCI는 '아시아'만 120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일본'이 577로 압도적임('19년 7월 No Japan 캠페인에 따른 특수 현상임).
- '홍콩/마카오'의 TCI는 108로 홍콩 민주화로 어수선하던 코로나 이전에 비해 높아진 반면, 그 외 지역은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함.

[단위 : Top2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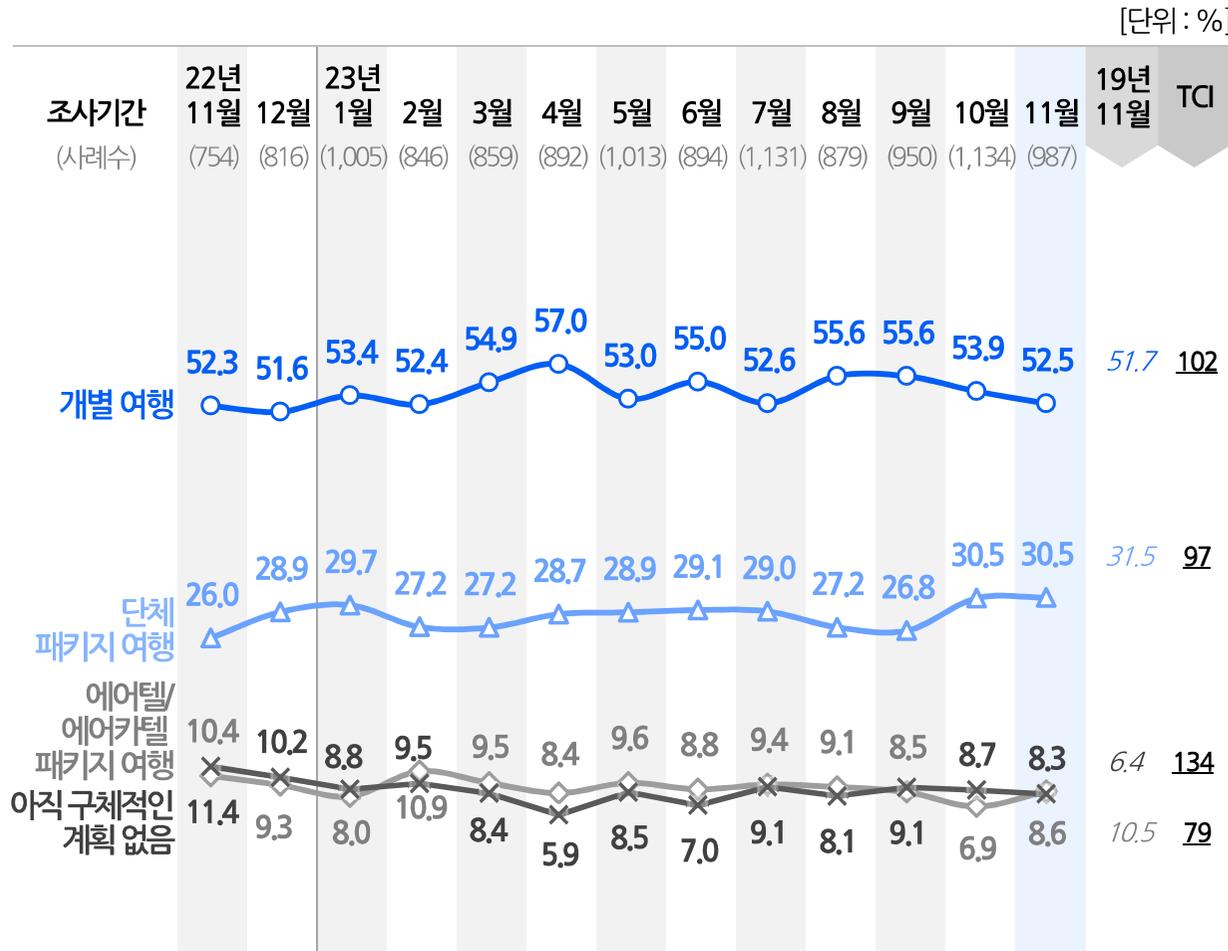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52.5%)', '단체 패키지(30.5%)' 순임.
- '개별여행'은 △아시아에서,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음.
- '개별여행' TCI는 102, '단체 패키지 여행'은 97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나, '에어텔/에어카텔'은 134로 크게 높음.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987)	(761)	(55)	(92)	(64)	(3)
개별 여행	52.5	55.6▲	59.9	30.5▽	50.0	0.0
단체 패키지 여행	30.5	28.5▽	18.2▽	48.8▲	31.2	100.0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6	8.3	11.0	8.7	12.5	0.0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8.3	7.6	10.9	12.0	6.3	0.0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개별여행/단체 패키지/에어텔-에어카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이슈

2020년	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 발병(2019.12) 이후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20.01)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집단 감염 발생 및 대규모 유행 등으로 전국 확산 ㉡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국외 유입 및 확산 방지 목적 국내 입국 내외국인 검역 시행 절차) 시행 ㉡ 일부 국가(이스라엘, 요르단 등)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
	0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2020.03 ~ 2022.04, 상황별/단계적 실시) ㉡ 해외 대부분 국가-지역 한국발 입국금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발효) ㉡ 5개 항공사 국제선 운항중단(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2021년	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백신 접종 시작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휴가비 600억 지원 발표
2023년	0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코로나 엔데믹 선언 ;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0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이 있는 주말 (10.30~12.03) ㉡ 외교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023년 11월

1주	11. 06 ~ 11. 12	수도권·강원 등 첫 한파 특보 엔화 가치, 860원대로 하락
	2주 11. 13 ~ 11. 19	대학수학능력시험 (11.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11.30) 국제게임전시회 '2023 지스타' 부산에서 개막 (11.16~11.19)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Vegan Tour to Korea 2023' 개최
3주 11. 20 ~ 11. 26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전국 스키장 개장 (11.24~)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코엑스 푸드위크 2023 개최
		4주 11. 27 ~ 12. 03

2023년 10월

1주 10. 02 ~ 10. 08	개천절 (10.0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부산국제영화제(BIFF)개막 (10.04.~13)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 (10.07) 10월 전국 곳곳서 가을꽃 축제 개최(갈대, 억새풀, 메밀꽃, 국화꽃 등) 외교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주 10. 09 ~ 10. 15	한글날 (10.0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서울·부산 개최 (10.10~11.19) 예산장터 삼국축제 (10.13~10.19) 한국철도공사, '운탄고도1330' 여행 상품 출시	
		3주 10. 16 ~ 10. 22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한류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K-POP콘서트 개막 (10.21~10.22)
			4주 10. 23 ~ 10. 29
5주 10. 30 ~ 11. 05	할로윈 데이(10월 31일) 제 18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여행이 있는 주말 (10.30~12.03)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결정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